

# 제343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6월30일(목)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계속)
  - 교육분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상정된 안건

- 1. 업무보고(계속) ..... 2
  - 교육분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산하기관 8개 기관과 유관기관 4개 기관 등 총 12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님께서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안민석 위원 훌륭한 여야 위원님들을 교문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상임위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결석을 했으니까 결석한 학생이 그래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이 많이 여주시고 그래서……

이틀 동안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그 문화재는 합법적으로 나간 것도 있고 약탈된 것도 있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문화재 환수 문제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에는 오틀리엔 수도원이라는 곳에 약 1000점의 우리 문화재가 지하 수장고에 10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이번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의 1점을 이번에 환수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파리에…… 직지 원본을 이번에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지를, 우리의 자랑인 세계 역사상 최초의 금속활자원본인 직지를 사진조차 찍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가 언제까지 파리에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의궤, 유일한 한글 의궤가 파리의 어느 도서관의 지하수장고에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왔습니다.

20대 우리 교문위에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있는 약탈 문화재, 약 15만 점에 이르는 약탈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방금 보고 겸 인사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습니까마는 제가 첫날 회의에서 말씀을 아마 드렸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문위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는 가장 최적, 최고의 교문위원장 감이신데 여러 절차와 과정 때문에 현재는 위원석에 앉아 계십니까마는 앞으로 우리 안민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참여를 해 주셔서 우리 교문위원회가 국회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로 거듭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계속)

- 교육분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10시06분)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李恩率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할 것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유성엽 예, 말씀하세요.

○李恩率 위원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위원장 유성엽 마이크 넣어 주세요, 이은재 위원.

○李恩率 위원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 중 일부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데.

문화재정 2% 확충 시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2017년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2018년이라고 답변한 사실 또 국제수영연맹 사무총장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를 잘하라는 촉구서한을 장관에게 보냈고 장관은 이를 받았음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착오를 해서 답변을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위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부장관의 분명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증의 벌을 받지 않으려면 다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사실은 국정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증'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시다마는 어쨌든 아까 주신 말씀들 잘 정리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잘 전달을 하고 또 적실한 답변을 받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하시지요, 우리 행정실에서.

먼저 오늘 보고 대상인 12개 기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간은 각 기관의 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로 배포되었으므로 각 기관의 현안 또는 중점 사업을 위주로 각 기관은 4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이내이기 때문에 꼭 4분까지 안 가셔도 그 이내를 잘 새기셔서 가능한 데는 그렇게 해 주시

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12개 보고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등 실무 총괄까지 맡아서 수고해 준 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혜천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식 기금사업본부장입니다.

길용수 교육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설립 이후 27년 동안 약 1조 3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사립학교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4개 실·본부, 7개 팀,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사립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업무와, 둘째 교직원들의 연수와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서 학교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 그리고 사립학교의 재정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각종 위탁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설립 이후에 1750개 학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해서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였고, 42개 행복기숙사를 건설·운영하여 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생기숙사 지원방식을 민자기숙사에서 공공기숙사로 전환하여 기숙사비를 기존의 월 32만 원 수준에서 최저 월 19만 원까지 낮춰 대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해서 거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단 설립목적에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대학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고등학교 재정자료를 집계·분석하고 집계된 고등교육기관 재정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예결산 및 기본재산에 대한 실태점검과 외부 회계감사·감리 업무 등을 통해 사학기관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영 재정 분야에 대한 실무연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대학에 회계시스템을 보급하여 사립학교의 경영 효율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대학의 자율적·상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대학운영의 자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쇄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학습권과 교직원 행정서비스 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특별편입 지원과 통합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저희 재단의 업무와 제도개선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안녕하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김화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식견을 가지고 20대 국회에 새롭게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단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광엽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이영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직원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사학연금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4년도에 설립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정적인 기금증식을 통해 성숙된 연금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2본부 1관리단 현재 198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연금법 적용은 사립학교와 그 경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마는, 5월 말 현재 7597개의 기관에 31만 2787명이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 연금사업과 자산운용사업 그리고 교직원복지사업입니다.

동그라미에 있습니다마는 5월 말 현재 총자산은 16조 53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월 말 손익현황을 보면 1조 5954억 원의 수입이 적용되었고, 급여 지급 등으로 1조 424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부담금은 3조 2819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5월 말 현재 3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등 단기급여가 세 종류가 있고, 퇴직급여 등 장기급여가 17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연금수급자는 5월 말 현재 6만 1665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연금월액은 약 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직 중에 직무상 질병과 부상 등에 지급하는 재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단은 브렉시트 등 불안한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 증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2521억 원의 수익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5월 말 현재 6986억 원을 집행하였고, 부동산은 서울회관 등 전국에 5개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위탁사업인 국고학자금 대여는 5월 말 현재 500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이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사학연금은 앞으로도 사학 교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석수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본 원의 교육학술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듣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송재신 정보기반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은 1999년 4월에 설립되어 현재 5본부 2단 1실 조직으로 현원 1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6월 말 현재 수탁사업비 등을 합쳐서 9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초·중등 ICT 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교육정보 공유·유통체제인 에듀넷을 통해 교원,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자 공공·민간의 교육자료 공동활용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인성교육 및 기초학력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교육과정 적용에 대

비하여 디지털교과서 확대 보급과 2018년 소프트웨어교육 정착을 위해 연구학교 지원과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교수, 연구자 등에게 학술연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술정보 공유시스템인 RISS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e-러닝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학의 우수강의자료 공동활용을 위해 대학강의정보 공동활용서비스인 KOC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 행·재정정보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전국 초·중등학교 교육행정기관의 교육 행정·재정업무 등의 정보화를 위해 나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 차원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각종 교육제증명 발급 등 학생, 학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과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예산지출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과 지방교육재정 관리체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한 사이버교육환경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실시간 사이버침해 사고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전자서명인증서 서비스의 상시 안정적 제공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정보화 글로벌 협력 및 정책연구 선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정보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교육정보화 공적개발원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개발협력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증자료 기반 정책연구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정보화 수준 측정, 성과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현안 연구 추진을 통해

정책연구와 교육현안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적 경영선진화 실현을 위해 기관 구성원 모두가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실천을 통해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경영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입니다.

먼저 우리 기관의 간부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금남 상임이사님이십니다.

박승렬 협업본부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3본부 1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51명입니다.

3쪽입니다.

재단의 2016년 예산은 8조 6000억 원입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재단은 크게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대출 지원, 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과 취업연계 장학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학자금대출은 취업까지 상환 부담을 유예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셋째, 인재육성

사업은 차세대리더 육성 멘토링사업과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고등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인재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장학재단은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통하여 또 아울러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완전하게 통합하는 학자금 완전 지원 시스템을 구축·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간략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압축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고전번역원 이명학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이명학입니다.

저희 원 현황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원은 1965년 민족문화추진회라는 민간단체로 출발하였습니다. 전통문화의 단절을 우려했던 박종화·최현배·이병도·이희승 선생 등 국학계 원로 분들이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달이라는 기치하에 창립한 기관입니다. 그 후 보다 안정적인 국가 번역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한국고전번역원으로 개칭하고 교육부 산하 학술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6쪽입니다.

저희는 원은 신라시대 최치원의 계원필경집부터 구한말 황현의 매천집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시문집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문헌 그리고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의궤와 천문·지리·법·수학 등 고전문헌을 번역·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저희 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은 서울 본원과 밀양·전주분원에서 매년 100여 명의 번역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전번역 후속세대 양성은 민족문화 전통의 맥을 잇는 대단히 중요한 사

업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서 저희 원은 내년부터 고전번역지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고전번역컨트롤타워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고전번역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저희 원은 고전의 대중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초·중등용 고전 읽기 자료 개발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고전 앱 ‘고구마’ 제작 그리고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우리 고전을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번역한 책들은 모두 한국고전종합DB로 구축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국고전종합DB는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에게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내 120만 명,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8만여 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한국학 연구 및 한류의 원천입니다.

고전은 내일로 가는 옛길이라고 합니다. 선조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원은 앞으로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고전의 계승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철 번역사업본부장입니다.

정영준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재단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운영처 최병만 처장입니다.

연구관리처 임상선 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재단의 목표와 임무는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체계적·종합적 대응을 통해 역사 갈등을 넘어선 미래지향적 한중일 관계를 모색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재단은 현재 2차 3소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3명에 현원 82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 총액은 20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단의 주요업무인 역사왜곡 및 독도 관련 대응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3쪽입니다.

첫째, 재단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분석·대응 등 역사교과서 왜곡기술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간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학술회의 및 인적 교류와 역사이슈 정립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둘째, 재단은 학술연구를 통해서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동북아 역사 화해와 평화 담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역사 현안에 대한 기초·토대 연구 및 심화·이론 연구와 함께 한국사 지평 확장 및 역사와 국제정치 분야의 학제 간 융합연구 등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셋째, 재단은 미국, 유럽지역을 통한 우회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역사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확산하고 국제적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단은 연구 성과물의 외국어 번역·발간, 외국 언론사를 통한 협력채널 확장 등 국제 홍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섯째, 중국·일본의 역사·영토교육 강화에 대응하여 동북아역사 현안 및 독도 교육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동북아역사지도편찬사업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동북아역사지도편찬사업을 8년간에 걸쳐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재단 자체 점검 및 관계부처 사안조사 결과 관리책임 및 연구결과물 품질 부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현재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은 지도 최종본 완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적 기준과 수준에 부합하는 역사지도를 편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재단에서는 독립청사 건립과 인력증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역사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재단 직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가의 역사 갈등 해소와 동아시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소명을 깊이 인식하면서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배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본원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처장 박동준 처장입니다.

검사역실 정석원 검사역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한 한국학 진흥이라는 설립목적 아래 연구, 교육, 국제교류, 정보화, 대중화, 한국학 진흥 부분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한국학 연구 결

과 산출을 위해서 한국학 기초 및 중점 연구, 글로벌시대의 한국적 가치와 문명 연구 등 8개 분야의 심층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 사업은 조선왕조 왕실 도서관이며 17만 권의 고문헌 아카이브인 장서각에 소장된 고전자료의 탈초·역주 및 스토리텔링 그리고 전시회 기능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민들과 소통·공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서각에 소장된 한국학 기초자료의 집적과 제공을 통해서 국내 한국학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고문서, 고서의 조사·수집·정리·보존 그리고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공감하는 한국학의 이해와 그리고 자긍심을 주는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거시험 답안지 전시회에 이어 어제부터는 장서각에 소장된 한글자료를 중심으로 '한글, 배려와 소통의 문자'로 전시를 해서 많은 하층민들, 여성들이 호소했던 그런 자료들이 감동 있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학대학원에서는 한국학의 발전을 이끌 차세대 한국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세계 31개국에서 외국인 학생이 들어와 있고 133명의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284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석·박사 학위과정 외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문화학당, 전통식 한문교육과정인 청계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학 및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연구지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국내의 한국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교과서 분석 및 오류 시정을 위한 한국학바로알리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5쪽에는 우리 한국문화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및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한국학아카데미, 한국학콘서트 한국학 대중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학 진흥 사업에서는 글로벌 한국학, 한국 인프라 구축,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등의 분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

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영화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본원의 관계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한식 기획경영관리처장입니다.

류은상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은 평생교육법 19조1항에 의거하여 2008년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총괄기구로 설립되어 1처 4본부, 정원 8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입니다.

5쪽의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개방형 학습제도 운영입니다.

2016년 3월 기준 324개 기관 6600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약 11만 3000명의 학습자가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15년 3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에 따른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 정비 및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평가단 역량 강화 및 평가인정 기준 세분화 등 평가인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K-MOOC 구축·운영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를 공개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 카이스트 등 국내 10개

대학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시범 서비스를 개통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약 8개월에 걸쳐 129만 명의 플랫폼 방문 및 약 12만 건의 수강신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년 상반기 32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금년 10월까지 39개 대학 총 127개 강좌를 개발·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MOU를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합하도록 K-MOOC 플랫폼 및 콘텐츠 활용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을 통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한 성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약 10개교를 선정·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대학별 성과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 교육지원 시스템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아직까지 성인 100명 중 6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원에서는 이러한 비문해자, 저학력 성인 학습자의 문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력인정제도 운영을 통해서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년 말 318개의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내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였고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를 준비하는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기업 연계 문해교육 등을 통해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8개 산하기관이었고요, 지금부터는 4개 유관기관입니다.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허향진 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

장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대학발전을 지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협의회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찬환 사무총장입니다.

정유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일반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교협은 203개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회원대학 회비 등에 의한 회비회계 사업, 특정 사업 참여자의 참가비 등에 의한 수입대체회계 사업, 대학평가인증을 위한 대학평가회계 사업, 교육부 위탁에 따른 국고보조회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약 1311억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입학전형사업은 대입전형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전형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대입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입전형에 필요한 진로 및 진학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대입상담센터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대입정보를 적시에 개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 간소화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는 대입전형 개선을 추진하여 대입전형 운영 과정에서 대학의 책임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고교와 대학연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을 목표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쪽

에 대학과 산업계의 요구, 인력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대학정보공시사업은 대학의 주요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14개 분야 64개 항목을 대학알리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험생들이 표준화된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여 접수하면 원하는 다른 대학에도 그대로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정시모집부터 시행하여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쪽 현안사항입니다.

다양한 현안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대학재정 개선 문제, 시간강사 문제 등이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1박 2일 동안 개최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총장님들의 주제 발표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기부금 소득특별공제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고등교육재정의 총량 규모를 확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우 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협의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은 사무총장입니다.

이승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일반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전문대학 교육의 건전한 발전에도모하기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총 137개 전문대학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전문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해외 사업으로서 전문대학 재학생들에게 해외 현장실습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및 전공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8쪽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학생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원된 도우미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일반대학을 비롯하여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가 지원대상입니다.

9쪽 전문대학 입학전형 관리 및 지원 사업은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고 상담교사단 및 온라인 입학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수험생에게 올바른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 지원 사업은 재학생들을 위한 기초학습·전공기초 능력증진 지원 사업과 우수 교수법 발굴 및 보급을 위한 우수 교수학습센터 지정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1쪽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본 협의회 부설연구소에서 고등직업교육 관련 각종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전문대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쪽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사업은 지난해까지 132개교에 대해서 1주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인증 2주기가 시행되고 있는 금년에는 갱신심사 및 사후점검 등 모두 78개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13쪽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지정 사업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수한 직업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4쪽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는 본 협의회에서 매년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우리나라 최대 직업체험 박람회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15쪽과 16쪽 사항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문대학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은 94%가 사립학교로서 등록금 의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7년간 등록금의 동결 또는 삭감으로 대학경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예산은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0쪽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상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에 부합되는 기간의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승우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용린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문용린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 편달과 고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공제회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근 경영지원이사입니다.

그다음 조경제 미래전략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최대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1년 1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 1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제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저축급여는 퇴직 후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형의 장

기저축 제도입니다. 장기저축급여는 높은 이자율과 안정성 등을 갖춘 우수한 상품성으로 월 3만원에서 60만 원까지 회원이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가입자 및 1인당 평균 구좌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 5월 말 기준 1인당 평균 가입 구좌수는 444.4 구좌로 회원 한 분당 월평균 약 27만 원의 금액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기타 공제제도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10페이지, 재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말 기준 총 자산은 꾸준한 부담금 유입과 기금운영 수익 발생으로 인해 27조 682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말 26조 6601억 원 대비 1조 21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산의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자산이 28%, 해외투자자산이 23.7%, 대체투자자산 21%, 회원대여 17% 등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손익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말 기준 금융투자 사업과 대체 및 해외투자 사업 등으로 총 6025억 원의 수익을 실현 중이며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으로 387억 원을 지출하여 5638억 원의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회원들에게 지급할 준비금을 전입하고 나면 370억 원의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년 동 기간에 비해 340억 원이 감소한 수치이지만 이는 국내 투자시장의 위축, 특히 주식시장지수와 채권금리의 하락을 감안한다면 양호한 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장동력 발굴 및 투자인력의 전문성 발굴 확보를 통해 수익창출에 매진하여 남은 기간 동안 목표를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이하 중점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민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임현묵 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보고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4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저개발국 교육 지원,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기여를 3대 중점 전략사업으로 채택해서 올해 4개 분야 6개 추진목표 아래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저개발국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문해교육, 유아교육,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의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을 2010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문해율이 낮은 사하라 이남 8개국을 대상으로 현지정보 및 유네스코국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교육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지역학습센터의 건립과 운영, 교사 양성 및 파견, 학습 기자재 공급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6개국에서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단체 등 현지 기관들과 협력하여 주로 여성교육, 아동교육, 기후변화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14, 15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인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가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과 꿈, 역량을 키워 주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역점을 두어 온 분야로서 전국 578개 초·중·고등·대학을 유네스코학교로 지정해서 평화, 다양성, 인권 등 유네스코의 가치와 정신을 길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해 7월 유네스

코세제시민학교를 설립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키워 주는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실, 유네스코학교에 세계시민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연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유네스코 총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인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기여와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역사문제를 각국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풀고 공동의 미래를 모색하는 동아시아 청년 역사 국제포럼과 한일 양국 교사들이 교류하는 한일 교사 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 17쪽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서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건의를 활성화하고 각종 유네스코 회의에 우리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저개발국 국가위원회의 웹사이트 개발 지원, 개도국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지원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선양하는 데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저개발국 교육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대국민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이 20억 원 정도로 소규모이지만 2800여명에 달하는 일반 후원자들의 작은 정성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활동은 국가를 대표하는 활동으로서 위원님 중에서도 여섯 분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되는데 한국의 유네스코 활동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우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보니까 공단의 오피스텔 매입이 연금수익을 고려한 투자가 아니고 공단 직원의 주거 해결을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단에 대한 사학연금 가입자, 또 연금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훼손시켰다 그런 감사원 결과 보고 내용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서는 ‘직원용 오피스텔 구입에 연금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이리면서 독려도 하고 또 직원들한테 수시 보고도 받으셨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보고받았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사건 발생 시기가 사실 대통령께서 주도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께서서는—저도 사실은 사학연금공단의 멤버이기는 한데요—사학연금공단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연금을 잘 관리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러시지요? 말씀은 아주 잘하시는데.

그러면 나주 오피스텔 매입은 김화진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신 것 맞나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통상 투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투자위원회와 리스크위원회 자산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지시하는……

○李恩率 위원 그러시면 어떻게든 우리 이사장님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지시가 아니고 건의를 받아서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李恩率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면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니까, 실장급 간부 1명에 대해서만 문책을 요구했지만 이 감사보고서를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니 이사장의 지시 또는 공단의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견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李恩率 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으실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나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상당 부분 또 감사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의 투자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감사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익률 구조를 잘못 대입한 잘못이 인정돼서 실장급 한 사람이 문책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李恩率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연금 개혁이 실패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도 없었다 그러면, 이게 약 50억 원이 들었는데……

물론 이사장님이 보실 때는 또는 이와 같은 공단에서 볼 때는 연금 운용액이 약 16조이기 때문에 50억 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니세요, 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그것은 아니고요. 그 투자 사업이 임대 수익을 가져와서 투자도 되고 직원들 숙소도 되고 일거양득이라는 보고를 받고 엄격하게 투자 룰대로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해 왔습니다.

○李恩率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다른 공단의, 지금 혁신도시로 다들 간 것체가 다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직원들 숙소를 마련 안 해서……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데 공무원들 왔는데 무슨 직원들 숙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원룸 얻어 가지고, 차관도 원룸에 비서하고 같이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사실 교수들이 얼마 돈 안 되는 것 가지고, 매달 얼마씩 내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의 지적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사장님께서도 결국은 이게 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과나 대책을 만드셔야지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한다 그러면 감사원이 실장급 간부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단은 경징계를 했어요. 어떻게 경징계를 했냐? 1개월 감봉으로 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결국은 우리 이사장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중징계를 할 수 없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

○李恩率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연금 가입자가 어떻게 공단을 믿고서 그렇게 돈을 맡길 수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수들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것에서 매달 떼어 가지고 그나마 노후에 연금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대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이 아닌 최소한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정직과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 경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50억이지만 굉장히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는 그런 판단에 너무 치중해서 이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엄정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李恩率** 위원 저는 10초만 주세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李恩率** 위원 이렇게 사학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서 일체, 관련 자료를 저희 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오늘은 교육부 소관 기관에 대한 첫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에 대한 간단한 조연과 간단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7분 동안에 안 되면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한중연 관련해서……

19대 때 이배용 원장님께서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서 다른 원장님, 다른 기관이 고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뉴라이트 논쟁 때문에 온통 질의와 관심이 원장님께 많이 쏠려서 그랬습니다. 20대 교문위에서는 한중연이 독재시대의 정신문화연구원이 아니라 한국학 진흥이라는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이사장님, 혹시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우리 이배용 이사장님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못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저는 김호섭 이사장님이 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셨군요.

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좀 무사안일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동북아 역사 전쟁이나 독도, 위안부 이런 대응에 대해서 제몫을 다 했는지에 대해서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국회도 열심히 성원하고 도와 드릴 테니까 본연의 역할,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고전번역원도 8년째인데요. 박석무 초대 이사장님 시절에는 그분께서 국회 문턱이 닳을 정도로 예산 확보 투쟁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 최근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족하다, 부족하다 타령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국회 여야 위원님들에게 호소하시고 고전번역연구원이 뭐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잘 좀 설명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세 분의 기관장님께 제안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해외 문화재 관련해서는 국외문화재단에서, 조그만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예산도 40억~50억밖에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국학연구원이라든지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지 고전번역연구원 세 기관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외문화재단과 함께 네 기관이 모여서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보존할 것은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것인지 또 환수받을 것은 어떤 아이템을 환수받을 것인지 좀 체계적인 전략 모색을 네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제안을 우리 이배용 원장님께서 그래도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세 기관장님께 제안을 하셔서…… 일단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궁무진하게 할 이야깃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요즘 ‘협치’ ‘협업’ 많이 강조가 되는데 해외 문화재 관련된 4개 기관의 협업을 부탁드리고, 이 제안을 4개 기관장께 드리고 이배용 원장님께서 한번 술선해서 주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민석** 위원 굉장히 필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교협……

대교협은 보수정권 8년 동안에, 이렇게 덩치가 커진 기관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직원이 한 2배가 늘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8년……

○**안민석** 위원 지난 8년 동안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항진** 직원이 위탁사업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계약직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직원이 한 2배 늘었고 예산이 한 5배 정도 늘었지요? 200억에서 지금 1000억이 되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항진** 예, 국고사업이 1100억 정도 됩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직과 예산이 늘어난 만큼 대학의 자율성도 비례해서 늘어났다고 평가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항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저희 국회도 열심히 성원해 드릴 테니까 대교협이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대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항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전문대교협 같은 경우에는 대교협이 지난 8년 동안 잘 나갔는데 굉장히 부진해요. 예산도 한 10분의 1 되나요, 대교협에 비해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전문대학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려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게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산업체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야들은 4년씩 직업교육을 시키는 분야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만 4년제를 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전문대학교에서 하는……

○**안민석 위원** 아니 과거에 학장을 총장으로 바꿔 달라고 하도 그러셔서, 그렇게 하면 전문대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하도 그러셔서 국회가 법을 바꿔 드렸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전문대교협에서는 본래의 전문대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충실하게 수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을 4년제로 늘려 달라든지 학장을 총장으로 바꿔

달라든지 이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학재단, 특정감사를 지난해에 했지 않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안민석 위원** 몇 개 대학을 특정감사 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특정감사가 4년제 대학 15개 교……

○**안민석 위원** 20개 했지요, 20개? 20개에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4년제대학 15개 교 전문대 5개, 그래서 총 20개 대학이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20개에서 14개 대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이 됐지요, 그렇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안민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14개 대학만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제 있는 대학이. 그래서 전체 대학으로 전수조사를 교육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 동의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입니다.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 수가 많긴 합니다만 일정한 숫자의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상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재단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매년이 아니라요 이게 국민들 알면 기가 찰 거예요. 국가장학금을 대학이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을 진짜 학생이 아닌, 30 이상의 만학도들을 일부러 모집해 가지고 주말에만 수업해 가지고 학점도 그냥 주고 그렇게 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이걸 국민들이 알면 기가 찰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알면 정말 분노할

일이지요. 그래서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을 저는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11년간 교육위 소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오신 경험과 경륜이 묻어나는 아주 날카롭고 무게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의 정말 품격 있고 업무나 이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문제점까지 다 파악을 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시는 것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한수 배웁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님, 우리 정신문화유산인 고전을 번역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승정원일기’는 목표량의 12%, ‘일성록’은 22%, ‘조선왕조실록’은 이대로 가면 2026년도에 완역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승정원일기’를 지금 이 속도로 번역을 완료하는 데 앞으로 100년이 걸릴 것이고, ‘일성록’은 50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맞습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승정원일기’는 과거에 표점 작업을 했으면 98년이 걸리고요. 그 작업을 일단 보류해서 지금 한 48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성록’도 마찬가지로 해서 한 2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 계산을 해서요? 보니까 누가 재미있는 통계를 냈는데 만약에 역자 1명이 1년 동안 작업을 할 경우에 ‘승정원일기’ 번역 완료까지 하는 데 한 2000년이 걸린다 이런 것도 누가 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 고전만 얘기를 했는데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할 텐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방안들이 있다면 뭐 뭐가 있습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아무래도 번역 인재 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정현 위원** 지금은 어떻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지금은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거기에 역사문헌을 전공할 수 있도록 과목도 개설하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 여기에 몸을 담게 되면 계속 이 일에 평생을 몸담아도 아까 몇십 년이 걸리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한 분들인데?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처우는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원 같은 경우는 337개 공공기관 중에서 247위고요. 그다음에 외부 역자의 경우는 한 분이 1년에 1800매를 번역합니다. 그런데 보통 원고지당 1만 6000원이기 때문에 1년 연봉으로 하면 28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세들은 다 30대 중반이고요.

○**이정현 위원** 이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됩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기본적인 자질이요?

○**이정현 위원** 예,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번역원 연수과정 3년을 마치고요, 전문가과정 1과정을 1년, 2과정 2년을 마치셔서 7년을 공부하고 나면 초별 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 또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인력, 이런 분들이 연봉 2000만 원씩 받고 이 일을 하면 이직 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인력은 그렇다 치고, 아까 상당히 많이 단축을 시켰는데 번역기법이라든가 사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그렇지 않아도 직원 교양특강에서 인공지능과 한문고전번역에 관해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칼럼을 보고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저희 원이 주관으로 해서 내년부터 연 20억씩 2년간 지원받아서 그걸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까 안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국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포함한 그런 지원할 사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대학실장님 아까 오셨지요? 지금 교육부에서 누가 와 계시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대학정책관입니다.

○**이정현 위원** 정책관님, 사이버대학 있지요? 사이버대학은 지금 여러 차례 교육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있지요? 이게 안 되고 있지요, 지금? 18대 때도 안 됐고 19대 때도 안 됐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교육안전국장입니다.

사이버대학은 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이정현 위원** 예.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올해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적격성이 좀……

○**이정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1개 정도의 사이버대학들이 있고 재학생이 13만 명, 졸업생은 한 20만 명 되는데 사이버대학들끼리, 대학교육협의회 있고 전문대학교협의회 있듯이 사이버대학협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18대, 19대 계속해서 법안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그 관계는 제가 좀 추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모르겠어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예.

○**이정현 위원** 대학교육협의회 이사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 특별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반대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반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대학도 사이버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정현 위원** 직장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학업하고 일을 병행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이버대학에서라도 공부를 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제도가 있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아까 대학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를 안 한다고 하니깐 20대에서는 이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협의회 구성이 돼서 좀 더 사이버대학 발전과 관련한 자신들의 의견을 단체적으로 한번 낼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고생 많습니다.

부산 북구의 전재수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지도 실패하신 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실패……

○**전재수 위원** 지난 8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전재수 위원** 지난 8년 동안 중간중간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안 해 보셨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우선 그 사업이 2008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8년간인데요.

○**전재수 위원** 8년 동안 진행되면서 중간에 점검이나 이런 걸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제가 취임한 건 작년 9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니, 재단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게 문제가 됐기에 좀 점검을 해 봤는데요. 8년간 사업이지만 1년 단위로 연초에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연말에는 그 계획서대로 과제가 수립이 됐는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했네요. 8년 동안 점검을 중간 중간 했네요,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했습니다.

○**전재수 위원** 좋습니다.

교육부의 국장님 나오셨나요? 교육부는 재단에  
서 진행되고 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점점 같은 것 하셨나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교  
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박성민입니다.  
저희 출연금 사업은……

○**전재수 위원** 중간 중간에 점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보  
고는 받았습시다.

○**전재수 위원** 보고만 받고 그냥……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전재수 위원** 8년 동안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  
받아 보니까 출판 안 되겠다, 실패…… 좀 문제  
가 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좀 설명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재수 위원** 보고서 다 봤고요.

혹시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나요, 없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역사교과서 상  
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전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이번에 역사 국정교  
과서 집필진에 포함된…… 확인이 안 되지요, 공  
개가 안 되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는 전혀 모릅  
니다.

○**전재수 위원** 교육부 국장님, 혹시……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이  
사업 하신 분들은 지도를 제작하신 분들이라 관  
련이 전혀 없습니다.

○**전재수 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전재수 위원** 그러면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을  
진행할 때 집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공  
개를 하고서 죽 진행을 했던 건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공개라기보다도  
우리 재단에 다 보고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역  
사지도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 및 자문위원 등등  
은 우리 재단의 보고서항입니다.

○**전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문용린 이사장님, 교직원공제회

201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있지요?  
분리회계 지적받으셨잖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전재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분리회계?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에서 하고 있는 보험사업이 있는데요. 이 보험사  
업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전재수 위원** 이사장님, 죄송한데, 지금 분리회  
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하고 있지요.  
분리회계는 못 하고요.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서 TF팀을 구  
성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전재수 위원** 그리고 교직원공제회가 지금 금  
감원에서 관리감독 받는 게 아니고 국회의 국정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재수 위원** 충분합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교육부와 협  
의가 되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전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사업도 하고  
하는데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금융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금융업을 하는  
건데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외부 감사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아주 충분하  
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45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감사를 받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사장님,  
감사원에서 2014년에 지적한 분리회계, 이것 다  
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2년씩이나 걸립니까? 이것 기존에 자산  
수익률 총액 이런 것만 죽 하다 보니까 보험수익  
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세  
부항목별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거거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알겠습니  
다.

○**전재수 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교직원공

제회가 원래 교직원 복지를 위한 곳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분리회계를 최대한 빨리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제회에서는 금감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면 너무 이중삼중의 감사 아니냐, 그래서 사업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경쟁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금감원에서 감찰받고 관리 감독을 받으면 번거롭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특히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바깥의 감시기능이라든지 규제기능들이 때로는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직원공제회가 정말로 소기의 목적대로 되는 데 있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금감원의 감사도 한번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그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 허향진 회장님,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대교협의 예산과 조직이 굉장히 커졌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교협이 대학 운영의 자주성, 공공성 높이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전재수 위원** 이번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학 구조조정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 간 선제 교육부가 유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국립대학 총장 선거제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재수 위원** 그 부분들도 교육부에다가 의견을 막 내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학 운영의 자주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끔 의견도 좀 개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그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또 대학 간에 의견이 달라서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12시까지는 한 2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네 분 정도 이동섭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까지 오전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총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공공성을 띤 공공단체 맞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총장님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입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공직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공직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예, 됐습니다.

총장, 그러면 공직자가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신청할 때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맞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공직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공직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동섭 위원** 총장, 그런데 왜 직책을 그만두지 않고 신청했어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 가입이라든지 정치활동 금지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직유관단체로서 제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게 맞나요? 확실한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그리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이 저희 유네스코한국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무총장이 나 직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섭 위원 직원들은 금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동섭 위원 확실히 다릅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따로……

○이동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공직자 신분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면 공직선거법 53조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저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이동섭 위원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직원의 범주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입니다, 아닙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경찰입니다. 그것은 그 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기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동섭 위원은 국민의 당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당원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공직자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내가 자료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저는 공직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까지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총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조사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사무총장께서는 20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위해 3월 19일 날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가 후보 선정에서 탈락되자 일주일만인 23일에 탈당을 했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 19대 총선에서도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2012년 3월에 등록했다가 탈락하자 바로 탈당한 적 있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무직 사무총장이 말이지요 이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탈당했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직책에 복귀해서 탈당하고 유리하면 신청하고 이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저는 민간인 신분으로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런 건 말이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려면 말이지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피와 땀과 노력의 결정체예요. 노력하지 않고 직책 수행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비례대표 신청하고 또 떨어지면 이렇게 복직하고 그것은 사무총장으로서 할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위원님, 제가 33년을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 온 전문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요건에 맞게 제가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앉으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다음에는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여기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2013년 교총 출범식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 일부 전교조 교사는 자율성이라는 이름하에 반대한민국 교육도 일삼는다. 이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지만 그렇게……

○**이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이동섭 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총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당시 스스로 EBS 이사직을 교총 몫으로 당시 관리했던 사무총장이 하는 셀프 추천을 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것은 교총 출범 이후에 최대의 사례였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이동섭 위원** 처음 있는 사례였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섭 위원** 2015년 9월에도 셀프 추천을 해서 이사가 됐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사장이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상임대표로 있는 단체가 사업비에 대한 회계 질서 문란을 이유로 작년에 교육부 감사를 받은 적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그 단체는 순수 민간인 단체인데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배부 가능한 교부금을 지난 4년간 21억 7000만 원이나 지원받은 적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것은 편법 수령 맞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정당한 법률에 근거해서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장께서는 EBS 이사로 재직하던 2014년 1월 당시 술자리에서 맥주잔을 집어 던져 동료 이사를 폭행한 적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 사실이 팩트는 아닙니다.

○**이동섭 위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자료로 설명을 다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사과의 말씀을 한다고, 인정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팩트는 아닙니다, 폭행은.

○**이동섭 위원** 올해 3월 총선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지원을 위해 교총 회장과 EBS 이사직을 사퇴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선정에 탈락하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거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사가 된 지 7개월도 안 돼서 사퇴한 것 맞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이동섭 위원** EBS 이사직은 이사가 된 지 7개월도 안 돼서 사퇴한 것 맞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8개월째였습니다.

○**이동섭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지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 중에서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종합비리, 종합 실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사퇴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35년의 교직자 생활을 통한 전문성을 발휘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장학재단을 잘 이끌고……

○**이동섭 위원** 자중자애하세요. 잘 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안민석 위원**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관장님들 중에서 20대 국회 비례대표 신청, 뒤신청이야 본인의 의사이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

면 열두 분 중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님 하고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두 분이 비례대표 신청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혹시 이 두 분 말고 나머지 열 분 중에서 비례대표 신청한 분이 계신지 이것을 확인하셔서 점심시간 때까지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점심시간 때까지 확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의 의지만 계시면 지금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고를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 하고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

○이종배 위원 장학재단 이사장님, 안양옥 이사장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이종배 위원 학자금대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죄송합니다. 이동섭 위원님이 하도 질의를 세계 하셔서 가지고 약간 정신이 좀 빠졌는데 다시 집중해서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좀 이따가 물어볼까요,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종배 위원 학자금대출 하고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이종배 위원 학자금대출 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또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보니까 금리가 좀 달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변동금리, 일반상환 학자금은 고정금리, 그렇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소득에 따라서 소득분위 7분위, 그렇지요? 7분위에서 8분위로 올렸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이종배 위원 지금 정신 다 괜찮으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이종배 위원 이렇게 올렸는데 결국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지요? 좀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데 주는데 변동금리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원래 변동금리는 사실 학생들에게는 조금 불리합니다마는 정부 재정을, 사실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대출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국가재정이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 아니, 일반상환 학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득과 관계없는 학자금은 고정금리로 하고 그래서 국가재정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돼도 괜찮고, 소득이 비교적 하위층에게 대출해 주는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까봐 변동금리로 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력……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요 2010년에 도입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 5년 비교해 보니까 724%나 늘었어요, 일반상환 학자금은 한 85% 늘었는데. 처음에는 일반상환 학자금이 많이 나가다가 요즘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 거의 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이자가 떨어지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계속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취업까지 가려면, 학자금 받고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오고 취업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들잖아요? 그것도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상당한 시간 후인데 그때 가서 변동금리로 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높은 금리로 상환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체 인원이 한 100만 명, 98만

명 되던데, 그렇지요? 비교적 저소득층 학생 100만 명에게 나중에 폭탄 안겨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선택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계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와 교육부하고 3자, 재단과 협력해서 다음 저희 보고 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정책 수정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너무 그렇게 또 질의했다고 정신 놓고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팩트가 있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동섭 위원님께 질의에 대한 팩트를 좀 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 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이종배 위원** 교육학술정보원 보니까 2015년도에 4년 연속 국민권익위에서 청렴한 기관으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고, 그렇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내부적으로도 청렴을 위해서, 그것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 맞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최근 직원들, 그것도 간부급 직원들이 직무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장기간 금품 로비 받고 골프 접대 받은 사실이 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그런 사항을 통지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간부가 이렇게 장기간, 한 명도 아니고 부장 본부장 또 3명 이렇게 장기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청렴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됩니까? 조직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청렴우수기관 평가한 국민권익위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이렇게 또 좀 만들어 가지고, 조작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좋은 자료만 제출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위원님, 우선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위원님을 걱정 끼쳐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KERIS의 전체적인 문화는 그런 평가에서 이렇게 보여 주듯이 정말 청렴하게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몇몇 그런 참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이게 몇몇이 아니잖아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3명입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이렇게 조치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이종배 위원** 교육부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라서 면직, 직위해제 조치하셨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 업체하고 그동안 계약한 게 한 409억 원 되네요, 2011년 이후 67건이나 되고? 이 4개 업체, 그렇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이종배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 로비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돈을 주고 골프를 치고 그러면 그냥 자기 개인 돈으로 뵈겠습니까? 회사에서 손해 보면서 뵈겠습니까?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용역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뭐 한 게 있을 텐데 왜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합니까? 용역업체에 대한 특혜 뵈는지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저희들이 원래, 자체 감사의 그런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감사를 시작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그동안에 무슨 징계 요구라든지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지가 되는 그런 것이고요. 상부 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이지요.

○**이종배 위원**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하고 그래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아니,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사안을 포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이종배 위원** 자체 감사는 안 합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교육부에서는 지난번 그 사태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나 또 검찰의 그런 조사 이런 것들도 기다려 보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할 그런……

○**이종배 위원** 자체에 자체 감사실도 있잖아요. 자체 감사실에서 보고, 이것 한두 명도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명인데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고, 또 재발방지대책도 만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남이 감사하고 있다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재발방지대책은, 제가 1월 말에 부임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그런 사안이 진행되는, 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바로 청렴서약식도 이렇게 했고요,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도 했고 청렴 강화되는 그런 대책을, 사안을 다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을 현재 마련을 해 가지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체 감사의 필요성 이런 것은 상부 기관하고도 협의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철저히 하세요.

○**위원장 유성엽** 보충질의 하시지요, 이따가.

다음은 우리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고양 일산의 유은혜입니다.

각 기관장 여러분 또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이사장님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유은혜 위원** 앞서 전재수 위원님께서 동북아역사지도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45억 원의 국민 혈세가 완전히 낭비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그냥 직원 몇 명이 징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정도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유은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여쭙 보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사업을 수행한 사람들은 학계의 교수님들입니다.

○**유은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문제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관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리 책임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죄송합니다.

○**유은혜 위원** 이게 정말 총체적인 문제인데, 회계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관리 감독의 문제, 지도 품질의 문제와 같이 종합적으로 다 얽혀져 있어서 이외에도 어떤 추가적인 문제들이 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재발방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재단에서 사업비 환수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12억이지요, 사업비 환수 내역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11억 9600만 원.

○**유은혜 위원** 12억 정도 되는데, 세부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가 초과 집행된 게 1억 6000이 넘고요 각종 수당이 부당 집행된 게 9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유은혜 위원**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15년에 종료되는 것이었는데 원래 5년이었던가 이게 3년이 더 연장된 것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8년 동안에 회계처리기도 대체…… 한 번도 중간점검이 없었다면 모를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회계처리를 허위로 보고를 했던가. 안 그렇습니까? 이것 인정하시지요,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매년 2회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유은혜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협약서인데요 해마다 협약서를 작성하셨어요, 해마다.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해마다 두 번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 오셨더라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유은혜 위원** 그러면 총 16번의 심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저기 한번 보시지요.

2008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중간보고 심사와 결과보고 심사 단 하나도 80점 이하로 내려간 게 없었어요. 80점 이상이면 다 통과되는 게 맞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최하가 84.8점이었는데 그게 2015년 7월 중간보고 심사결과였거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유은혜 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2015년 마지막 심사 때 14점이라는 평점을 맞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이해는 안 됩니다. 다만 마지막 보고 심사는 제가 취임한 후에 심사를 한 것입니다.

○**유은혜 위원** 이사장님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죽 계속 80점 이상의 평점을 받다가 그것도 일이 점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14점이라는 평점을 맞으면서 이게……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심사를 진행할 때 데이터 손실로 문서 열람이 불가했다는 2013년도 결과보고 심사도 있었어요. 이것도 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그래서 제가 재단의 관리 감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내용은 고사하고 지도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

문에 지금 출판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 45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고 그것도 이렇게 회계상의 손실을 가져오면서까지 관리 감독이 그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유은혜 위원님 말씀은 지금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이 협약서를 살펴보니깐요 2013년도 협약서에는 관인도 여기에 날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름만 써 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는 관인 날인이 안 되어 있으면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유은혜 위원님께서 어이없어 하시는 부분은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품으로 따지자면 국고를 45억 들여서 불량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유은혜 위원** 국민들이 이것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판 불가하기 때문에 지도는 공개를 안 함니까, 지금 만들어진 최종본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심사평은 유은혜 위원님께서 차후에 요청을 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런데 학계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물이 지금 출판 불가 상태이지만 그래도 후속 세대라든가 또는 앞으로 역사지도를 만들 때 굉장한 큰 교훈을 받은 것은, 그런 부분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위원** 그게 45억 들여서 이 교훈 받으려고 지금 그런 일 하신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부 기초실장님 나와 계시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예.

○**유은혜 위원** 사안 조사하셨지요? 사안 조사하셨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예.

○유은혜 위원 사안 조사 결과 저희 방에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예.

○유은혜 위원 특별감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제가 즉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시나요, 실장님? 납득 안 가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는지, 동북아역사재단은 정말 이 일로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것이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이 이 재단을 신뢰하고 재단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해 나가실 것인지 그 대책, 개혁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죄송합니다.

○유은혜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까.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안민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하신 사항을 정상적으로 파악을 해 보려면 각 당으로 지역이든 비례든 지난번 공천 신청자들을 협조를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될 일이어서 우선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하면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전희경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는데 아마 한 7분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12개 기관장님 중에서, 아까 두 분 확인된 분 빼 놓고, 작년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되었든지 간에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 신청을 하신 분이 있으면 바로 식사하러 가지 마시고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은 그냥 바로 식사 가셔도 좋고요.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로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께 좀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전희경 위원 대학교육협의회 목적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학 운영의 자주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조직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전희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대학교육협의회 위상이 도 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이나 또 경쟁력 강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부라는 그런 규제, 그러니까 획일적인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무려 203개 대학교의 총장님들께서 모여 계신, 어찌 보면 위상으로는 우리 고등교육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맞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이 어떤 부분은 뭔가 대학교 입시 관련된 그런 내용을 그저 대리 수행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 그 외의 부분도 교육부 실·국 차원 수준의 어떤 업무 분장 선에서 교육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우리 회원 대학 총장님들과 또 이사님들의 그에 대한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위탁사업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또 대학교육협의회 총장·이사님들하고 또는 회원들하고 좀 더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또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국민들께서 아마 대학교육협의회에, 무려 대학총장님들 200분 이상 모여 계시는 그 협의체에 바라는 것은 아마 교육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세계 교육시장을 내다보면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좀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데 어떤 매우 실무적인 선에서 교육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략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별 또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이나에 따라서 입장들이 다른데, 예를 들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마다 질을 결정하는 문제들, 등

록금 문제, 학생 선발권이 과연 우리 대학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교를 정말 속속들이 아는 총장님들이 모여 계신데 거기서 나오는 대학교 구조조정의 목소리라든지, 4차 산업 대비한 인력 수급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직선제·간선제의 문제, 이 대학총장 직선제의 폐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들이 모여 계신 데서 뭔가 의미 있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대교협의 정말 존재 의미를 다시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 수시에도 대학입학 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전희경 위원** 이게 작년에 정시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시는 한 학생당 3장의 원서만 쓰면 되기 때문에, 또 그때는 별반 문제가 없었다 치더라도 이번에 수시 같은 경우에는 6장씩 한 학생이 쓰고 또 수시의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큼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그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우리 실무자, 경영지원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라는 게 또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알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 내에 기초교양교육원이 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거기의 지금 원장님에 관한 규정 미비라는 지적이 있던데, 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이 지금 미비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빨리 그 규정 완비하실 것이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 받으셨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전희경 위원** 역사교과서 정상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고를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한국전쟁 관련 아카이브 구축과 제 연구 강화를 하시겠다고 2016년도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전희경 위원**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우리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국가행사에서도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연구자에 대한 보고는 안 받았지만 지금 북침설에 대한 것을 남침설로 그것을 잘 균형 있게 하고 지금 국사편찬위원회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연구진과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제3국에서 우리 전쟁을 그냥 중립적으로 평가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고, 6·25전쟁이 정말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꼭 그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전희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 해서 우리 한국학을 공부하려는 정말 많은, 31개국의 133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한국을 알고 돌아가야 또 우리 한국에 대한 주변의 우호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텐데 이 학생들이 돌아가면 자국에서 어떤 진로에서,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도 하고 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파악하면 대체로 지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되는 사례도 많고요. 또 전문직에 종사하고 그래서 매우 우리 한국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 전파 역할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한국어도 잘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희경 위원**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외국에서 잘못 알고 있어서 여러 국내 이슈에 대한 외국의 여론이 잘못 호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은 사전에 정해진 한국학 오픈아카데미 수료식 참석을 위해서 오후 4시부터 이석을 요청해서 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였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는 박동준 기획처장이 대신 답변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를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허향진 회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오영훈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입학전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교육비는 총액 기준 교육부 발표 자료는 17조 원, 17조 8000억 원이 되지요. 또 한국

KDI에서는 33조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000원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사교육 문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기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취업 등에서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인데요. 즉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도입을 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오영훈 위원**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 즉 학벌, 스펙 등을 표기하지 않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한 채용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대학입시 전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고교 서열화 문제로 사교육비 증가가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입시 전형에 반영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회원 대학 총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교육부와도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입시 전형 과정에서 출신 학교, 즉 출신 고등학교를 표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육부 공무원, 누구 와 계시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대학정책관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저께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교육비 문제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 서열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고교입시 다양화 부분에서……

- 오영훈 위원 아니, 대학입시 과정에서……
-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대학입시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사교육을……
- 오영훈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을……
-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학 전형에 대해서……
- 위원장 유성엽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 오영훈 위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죄송합니다.  
저희 입시에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학생부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교 간 차이를 최대한 낮추고 입시 기회를, 입학 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 오영훈 위원 그 과정에서 출신 학교, 출신 고등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12년·2013년,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지요?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맞습니다.
- 오영훈 위원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지요?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주로 교수 정원이 대학원 수업의 적정 수준이나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동안에 성과급을 줬던 게 맞느냐 해서 다 회수하라고 그래서 회수 조치는 다 했고요. 교수 정원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것은 TF를 두 번을 해 가지고 지금 잘 안정이 됐습니다.
- 오영훈 위원 안정이 됐는데, 당시에 1학기 동안 27명의 교수가 수업이 없었고 240명의 교수가 9시간 미만의 강의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고요. 제가 2013년 9월에 와서 이 사항을 알고 14년부터 적극적으로 원내 교수들이 수업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장치를 해 봤습니다.
- 오영훈 위원 당시 교육부에서 조직진단을 외부 기관에 맡겨서 하기로 했었는데 조직진단 내용이 있습니까?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제가 오기 전에도

- 한번 TF를 구성해서 외부 평가를 받았고요. 또 제가 와서 다시 한번 12월에 TF를 구성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 오영훈 위원 컨설팅 받은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교수 1인당 주당 강의 시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총 10명을 채용할 계획을 다시 갖고 있는데……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세웠습니다. 다섯 명 채용했습니다.
- 오영훈 위원 다섯 명 이미 채용했습니까?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일단은 인사절차가 다 끝났고요. 8월 1일 자로 발령입니다.
- 오영훈 위원 교수진이 부족해서 지금 채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교수가 계속 발생하니까 지도교수 또 교육 이것에 한 사람의 교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제일 우선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 오영훈 위원 교수 주당 강의 시간이 이제는 적정해졌다는……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맞습니다.
- 오영훈 위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산하기관장님,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가 지금 거명한 기관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기업에서 여전히 학력과 출신학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외에 제가 앞서 호명하지 않은 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향후 2017년까지 NCS 기반 직무능력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반드시 입사원서에서 학력란 또는 출신학교 기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치르는 모의고사에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출판사가 낸 이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다음 중 다케시마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택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보기에는 러시아·중국·북한·한국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국을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험지는 모의고사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조훈현 위원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 2014년 1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교과서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이듬해에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서, 올 들어서는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알고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정부, 학교가 출제한 문제가 아니라 민간 출판사가 판매한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보여 주는 신호탄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조훈현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희 재단에서는 평소부터 줄곧 일본 역사교과서에 있어서의 역사 왜곡된 기술 문제 및 독도에 관련된 왜곡된 기술 문제를 연구해서 분석하고 그런 결과들을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검정 통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보고하고 긴급 토론회, 학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해 왔다고 하지만 결국 일본의 역사왜곡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

다.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등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연구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교육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어떤 공동대응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희는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관에는 동북아 역사 문제 및 독도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 및 정책 대안, 정책 개발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줄곧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관련돼서 제가 방금 말씀 올렸던 왜곡된 기술 문제 또 독도의 영토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는 왜곡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줄곧 저희가 조사를 하고 연구, 분석 등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훈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일본의 우익들이 역사교과서를, 자국 내의 역사교과서를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해지고 그것이 또 아베 수상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교육부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런 모습들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이슈화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런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면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기정사실인 양 굳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재단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올렸듯이 외교부와 교육부의 지도와 감독을 저희가 받아서 또 협조하면서 단호하게 그러한 왜곡된 모습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현 위원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심각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 공약에 독도와 군 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과 비슷한 기관을 설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를 선거에 본격 이

용하면서 독도 문제를 정치, 사회, 교육 등 전반에 걸쳐 끌어들이는 시도로 보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대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방금 말씀하신 이번 7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위한 자민당의 선거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 400여 개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차세대를 교육하고 그러면서 국가 명예, 그러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단호히 막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약이 있었고 아마 7월 10일 이후에는 그 공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은 역시 외교부와 교육부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조훈현 위원** 일본의 역사왜곡이 초등학교 교과서로부터 참의원 선거 공약까지 가히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의 조승래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에 143곳 이렇게 있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고 예산을 18억 들여서 매년 30여 곳에 지원하고 있다, 신규 지정 및 기존 도시 지원한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지정해서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그 누적으로 아마 143곳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예전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열의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로 지정된 곳에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출 구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명색만, 이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평생학습도시로서 역할을 못 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아주 박탈을 해 버리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자발적인 활성화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어르신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노인대학이 평생학습에 포함돼 있나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노인들까지 대상으로 전부 하고 있고, 특히 지자체들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 베이스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고 있는데 여기 참여자 중에 노인도 있고 소외계층들도 들어 있고 다양한 대상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마 참여자는 당연히 그러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체계적으로 평생학습과 연결돼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인 검토를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생학습계좌제 문제인데요. 이게 생각만큼 속도가 잘 안 붙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요새 계속 TF를 구성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온갖 다양한 직무교육도 받고 다양한 교육들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공직사회 먼저 이 평생학습계좌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일반기업도 따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제도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건 같이 상의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 제안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잘 새기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고전번역원장님 계시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예.

○**조승래 위원** 지난 2015년 3월 18일부터 해서 역사 관련 유관기관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으시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예, 3번 참석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3번 참석하시고 4회 때부터 지금까지는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참석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명학**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세 기관은 학술연구기관이고 저희는 그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번역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조금 맞지 않아서, 그래서 참석을 안 하게 됐습니다.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역사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회의는 2015년 3월 18일 1차 회의를 해서 거기에 국사편찬위원장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 고전번역원 원장님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두 달에 1번씩 회의를 하셨습니다. 1차 회의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운영합시다라는 게 대부분이었고, 2차 회의는 5월 달에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담회 결과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차 회의부터 문제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고대사도 중요하지만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필요하다, 현대사는 역사학 분야뿐 아니라 정치사적 측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적 측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2차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됐고요.

3차 회의 지나서 4차 회의, 2015년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날 이 얘기가 나옵니다. 2015년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편찬 준거시안 개발 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건 아마 교육부가 이야기한 거겠지요. 즉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얘기가 이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편찬 준거시안, 그러니까 편찬기준이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유관기관이 협조해 달라라는 얘기가 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이 편찬 준거시안 개발할 때 도움을 주셨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죄송하오나 2015년 9월 17일 날 제가 이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조승래 위원** 그러면 됐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그때 국사편찬위원장님한테서 대한민국을 건국으로 하느냐 또 수립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부 수립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승래 위원** 그러면 그 시안에 대해서, 보통 기관 간 협조라는 것은 구두로, 구술회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조승래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역사 편찬기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서로 보내는 것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없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

○**조승래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한 회의를 하신 거네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그냥 공유, 수립을 해서 아마 교육과정에 수립이라고 수록된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 회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회의를 안 하시다가 2016년 4월 14일에 회의를 하세요. 총선 다음날입니다. 이때는 회의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총선 결과 새롭게 당선된 제20대 국회의원을 대

상으로 해서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016년 6월 8일 날 회의를 통해서도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고사, 고대사도 중요하지만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 필요하다.’

조금만……

○위원장 유성엽 예, 더 하십시오.

○조승래 위원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 필요하다,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되……

그러면 경청의 의미가 없지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일리가 있고 타당한 얘기들을 수렴을 하는 것이지 마치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이 이미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서 회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소위 국정화를 전후해서 역사 관련 기관들이, 예전 말로 얘기하면 관계기관 대책회의 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관련된 발표를 하실 때 편찬심의위에 역사연구 3기관장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들어가 계신가요, 그 심의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그 부분은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모든 걸 중심으로 하시고 집필자나 심의위원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승래 위원 내용이 앞뒤가 서로 간에 너무 안 맞잖아요.

○위원장 유성엽 시간이 1분이 더 지나셔서 이따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 위원님, 준비되었습니다니까?

○김민기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용인율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김민기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뒤에 있는, 다른 분 나오셨지요? 다른 분 같이 나오신 분 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김민기 위원 다른 분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도 편찬 실패, 실패한 건 사실 맞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어떤 연구 과제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하문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약 출판이 현재 상태로서 불가할 정도의 품질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출판이 불가하다 하는 판정을 저희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사업은 파기된 겁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사업은 연구 결과물로서는, 저희가 연구 결과를 하면, 성적으로 하더라도 9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민기 위원 아니, 파기했어요, 안 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파기는 안 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사업 파기 불인정 안 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게 2015년도 11월에……

○김민기 위원 아니, 파기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파기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2015년 12월 달의 심사에는 저희가 파기를 하겠다고 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단에서 수정·보완을 할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사실상 4개월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이후에 저희가 재심사를 했습니다. 재심사에 A·B·C·D에서 좋은 성적부터입니다마는 D등급……

○김민기 위원 아니, 파기했어요, 안 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파기를 안 한 바, 파기를 안 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하는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아니, 8년간의 연구기간이었기 때문에 연구기간은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아니, 지금 파기했냐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연구 결과물을……

○김민기 위원 아니, 여러 말씀 하지 마시고요.

파기했어요, 안 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파기를 안 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파기 안 했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연구기간은 끝났습니다.

○김민기 위원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용역을 줄 때는 연구기간을 2년이나 3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김민기 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김민기 위원 이사장님 답변은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내 주신 자료는 파기했어요. 아까도 그런 취지로 다 말씀하셨고……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2015년 12월 달의 심사에는 파기를 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기 통고를 받은 사업단이 수정과 보완할 기간을 달라 이렇게 해서 준 바가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사장님 말고 다른 분, 재단의 국장님 오신 분 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희 간부도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어서 제가 더 잘 압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현재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가는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파기했어요, 안 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파기한 바 없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계속하는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 연구기간은 종결됐습니다.

○김민기 위원 연구기간은 종결되고 이 사업은 파기되지 않고……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연구 결과물이 들어온 것에 대한 심사를 했고요. 그 심사가 A·B·C·D등급에서 D등급을 저희가 부여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알아듣게 한번, 어차피 그랬으니까 설명을 조금……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러니까 그 사업이 8년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8년간이 연구기간이었어요. 그 연구기간이 끝나면 연구

결과물을 우리 재단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김민기 위원 아니, 심사를 했는데 좋은 걸 갖고 왔냐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D등급의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래서 연구가 매우 부실하다고 저희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서요? 부실해서 어떻게 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부실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5년간의 연구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사장님, 참 말씀이 많으신데요. 지금 직원 몇 명이에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희가 83명입니다.

○김민기 위원 83명 중에 몇 명 징계받았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16명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희 예산이 201억입니다, 작년도.

○김민기 위원 이 201억 중에 1년 예산의 4분의 1 정도 되는 45억이 날아간 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아닙니다. 8년간에 45억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1년에……

○김민기 위원 1년 예산이 200억인데 1년 예산의 4분의 1 정도 되는 45억이 지금 날아갔다, 이해 못 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1년에 5억을 지출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200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기관에서 45억 정도의 손실을 냈다라는 거예요, 헛짓을 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러니까 총액 배경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김민기 위원** 아니, 질문이 파기했느냐라는 거고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지도도 갖고 있거든요. 이 지도가 45억씩 들여 놓고서는 그냥 버릴 지도가 아니에요. 45억씩 집어넣어 놓고서는 그냥 ‘아, 이것 잘못 했구나’ 획 버릴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 조정하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이상하지요? 조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글자 간격, 위치 문제가 겹친다, 해상 경계 위치가 부적절하다,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있다, 투영법이 미수정돼 있다, 난해주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김민기 위원** 이런 데 45억씩 투자해 놓고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만, 외교적 문제가 있다면서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외교적 문제가 있을 것 같지요. 맞지요?

8년 전에 시작할 때는 호기 있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의 역사왜곡, 중국의 동북공정이 생겨 버린 거예요. 이것 완성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기가 들어간 겁니다, 수순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단에서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지금……

○**김민기 위원**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마무리하십시오.

○**김민기 위원** 45억짜리가 있는데, 물론 굉장히 잘못 만들었어요. 이것 잘못됐구나, 16명 징계 주고 고칠 것 고치고 이렇게 끝을 내자, 그럴싸한 것으로 보기에 너무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지도에 보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투영법? 괜찮아요. 대한민국 기울어져 있어? 이런 것 다 괜찮아요. 고

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추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국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있겠지요. 재단에서 어떤 대책 내놨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 지도를 다 버린다고 하는 말씀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다 시정을 했고 지도학자들……

○**김민기 위원**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한반도와 만주지역, 몽골 인근 지역만 그리겠다,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맥락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성엽** 김민기 위원님, 여차피 이견 여기에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충질의 이따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니까요.

짧게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8년 동안 사업단이 시행한 연구결과물로서 역사지도를 저희가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학자들 다섯 분을 우리가 초빙해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사실 지도학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다섯 명의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학 전문가들 판정에 의하면 ‘매우 부실한 연구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그것을 존중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었던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엽**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 7분이라는 시간에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물론 길게 들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길게 하시다 보면 또 질문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압축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도 위원** 대구 중구남구 광상도 위원입니다.

먼저 대학교육협의회장님께 좀 여쭙 보겠습니다.

지난번 하계대학총장세미나 때 대정부 건의문 발표하신 일이 있으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곽상도 위원** 여기 보니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만 학령인구 감소가 정부가 의도한 겁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그건 아니지요.  
 ○**곽상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곽상도 위원**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대학마다 부담하는 장학금, 국가재정사업 대형 투자금 등으로 대학재정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건의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사립대 적립금은 상당히 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조금 논의해 봐야 될 건데요. 사실 기금과 등록금을 가지고 적립한 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라든지 또는 재단이 하는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한 것은 적립금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고요.  
 ○**곽상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돈이 늘어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곽상도 위원** 그러면 이 건의문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학교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늘었지 않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그것은 아마 등록금으로 인해서 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 따라서 재단이 탄탄한 대학들, 그런 대학들이 기금이 늘어난 겁니다.  
 ○**곽상도 위원** 그렇습니까? 우선 정부사업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상도 위원** 우선순위가 자발적인 구조조정 맞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곽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장학재단에 좀 여쭙 보겠습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작년 말로 완성이 됐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정부 발표가 그렇고, 우리 장학재단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아닙니다.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학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체 총량으로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돼 있다고 봅니다.  
 ○**곽상도 위원** 그런데 학자금대출 연체율 현황, 보고서 17쪽을 보면 2015년도 연말까지 이게 대출잔액이 얼마지요? 이 돈이 59조인가요, 598조인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5조 원입니다.  
 ○**곽상도 위원** 5조인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곽상도 위원** 그런데 2016년 5월 30일까지는 상당히 짧은, 반밖에 안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연체된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또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곽상도 위원** 연말부터 금년 5월 말까지 통계 잡은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게 맞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일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장기연체자라든가 연체율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맞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회수는 또 잘 안 되고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회수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최근에 회수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곽상도 위원**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동북아역사재단에 좀 여쭙 보겠습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하는 일본 교과서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되고 나서 동북아역사재단 쪽에서는 역사왜곡 현황 및 대응 관련 전문가 학술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열었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 학술회의 열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대응하는 관련 학술회의 열고 카드 제작해서 배포하고 나서 무슨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희는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과 인식을 공유했고 그 공유된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곽상도 위원** 동북아역사재단의 과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이 5년간 8.8%에 그쳤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곽상도 위원** 동북아역사지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물으시니까 저는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이런 대응이 여의치 못하고 동북아역사지도 문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보고서 7쪽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북아역사관을 건립해서 동아시아지역 연구의 세계적 중심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무력감이나 허탈감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희가 더욱 더 잘 분발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여쭙 보겠습니다.

한국 관련 외국교과서 오류가 지난 2014년도 자료에 보니까 약 11% 정도 시정한 걸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곽상도 위원** 그 뒤에 금년도는 어느 정도 시정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지난해가 제일 많은 건수로 151건을 지적했고 시정이 됐습니다.

○**곽상도 위원** 미국 국방부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게 문제가 되고 있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곽상도 위원**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없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 버지니아 주는 또 그걸 바꿨고요. 계속 지금 외국교과서 전문가 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또 외교부와 협력을 해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만약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을 경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을 먼저 고지합니다.

두 기관 근무자 중에서 국정교과서 집필진 참여자가 몇 명이지요? 빨리 말씀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이 부분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안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있다는 얘기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아니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병욱 위원** 직원들 근태 보면 알 텐데 모른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아니, 근태를 봐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병욱 위원** 왜 모르지요? 기관장이 직원들 근태 체크 안 하나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체크하지만 집필에 참여했다 이런 것은 근태 사항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국편에서 공개를 해야 저희도 알게 됩니다.

○**김병욱 위원** 아니, 근태가 불량한 사람을 체크 안 하는 기관장이 기관장인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아니요, 나갈 때 역사교과서 집필하러 나간다 이렇게는 안 쓰거든요.

○**김병욱 위원** 그런데 사유는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직장에 안 나오는지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김병욱 위원** 그러면 기관장으로서 업무태만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그건 아닙니다.

○**김병욱 위원**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몇 명이지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진실만을 답해야 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전체 직원이 83명입니다.

○**김병욱 위원**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있다는 얘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욱 위원** 그것도 공개 못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집필진에 참여하는, 저는 정말로 정치인이기 전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후배 학생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직장 내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근태라든지, 어차피 그 사람들은 회사의 공식적인 파견 업무 없이는 그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업무를 할 경우에는 그만한 합리적인 서류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업무성과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 그리고 또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회사가 참 많은 회사예요.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김병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 자료에 자회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아마 출자회사 8개, 무슨 설악산 가족호텔 이런 것들일 겁니다.

○**김병욱 위원** 아니지요. 지금 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자회사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본금 기준으로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전체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8개의 출자회사가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약 3700억 됩니다. 그리고 호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조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골프장도 있어요. 아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공개 안 해요? 당연히 그 회사의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상장기업은 다 연결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가출연기관이면, 자회사가 무려 1개도 아니고 8개씩이나 되고 금액도 3700억이 넘고요. 자본금 기준으로 3700억, 투자금 기준으로는 거의 8000억 될 겁니다. 그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교직원공제회 업무보고 자료에 그걸 누락시킨 이유가 뭐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일부러 누락시킨 건 아니고요. 그것이 8개를 합하면 한 3700억 정도가 됩니다. 예컨대 예다함 같은 데는 출자금액이 50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김병욱 위원** 금액이 적어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상법상 아마 그것이 공개되게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본 회의 모든 재무제표에는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출자회사의 내부 상황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자회사 현황, 대표자의 인적사항, 그다음 최근 3개년치의 결산실적을 다 작성해서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사학이 국공립대학과 다른 것은 법인의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전입하는 거지요. 직원들이나 교사들의 연금과 그다음에 건강보험 일부를 사학법인이 학교에다가 전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의 많은 사학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그렇습니

다.

○**김병욱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 매년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교육부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300억, 13년에 2500억, 14년에는 무려 3140억이나 법정전입금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그만큼 사학재단들이 어렵다는 방증 같은데요, 저희 재단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승인업무를 하는 위탁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세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각 사학재단이 제대로 부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익용 기본재산을 위한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사학재단들이 능력이 있으면서 제대로 안 내는 그런 기관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런 부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사학재단의 법정전입금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여쭙겠는데요. 사립학교의 재단비리, 뭐 부정비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회계 투명화 그다음에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급하고 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 예산, 돈 얼마 들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한 6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의 총 몇 %가 그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지금 한 37개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한 10%를 조금 넘습니다.

○**김병욱 위원** 왜 그렇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사립학교들에, 특히 중소 규모 사립대학들이 그런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마는 사립대학에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사립대학에 저희 시스

템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각 대학 총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계속 시스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각 총장님들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 관리의 비리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대책으로 일정 세대 이상 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쓰게끔 정부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김병욱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측에 이 회계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쓰게 한다 그러면 사전적 비리 예방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로도 회계비리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립을 포함해서 모든 사립대학이 같은 회계 프로그램으로 모든 대학의 회계처리를 한다 그러면 사학비리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않을까, 그래서 그 관련법을 제안하려고 하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위원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또……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대교협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8월에 5개월 동안의 대학평가를 통해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의 신규사업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등의 지원이 제한되는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대학 중에서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 무려 29개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김석기 위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제한받은 대학들이 대교협 인증은 통과를 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김석기 위원** 회장님, 이 인증을 주는 기준이 정확히 됩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대학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를 가지고 인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의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미충족’이나 ‘미흡’이 몇 개 이상이면 불인증이고 ‘충족’이 몇 개 있으면 인증받고 그런 내용입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김석기 위원** 바로 그런 점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특별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각 항목에 대해서 자체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김석기 위원** 그래서 각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의 특성상 ‘봐주기 식이다’ 또 ‘부실대학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인증을 악용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혹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알고 계시는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지급 같은 경우도 신입생, 편입생에게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 E등급은 모두 전면 제한이 됩니다.

이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목적이 최소요건을 갖추고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학에 인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 평가에서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제한할 정도로 교육의 질이 저하된 대학까지도, 질이 아주 나쁜 대학까지도 대교협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매년 5년 주기로 대교협이 대학 인증 갱신을 할 때에는 정말 철저하고 세밀하고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심사가 이루어져서 ‘대교협의 평가가 이해관계에 대한 봐주기 식 인증의 남발이다’ 또는 ‘부실대학 이미지 세탁이다’ 하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잘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김석기 위원** 이사장님, 2014년부터 사립대학 외부 회계감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 감리사업은 기존의 대학 내의 회계처리와 대학을 회계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을 하면서 대학의 재정 상태를 확인·평가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처럼 분식회계가 있으면 재정이 건실한 대학과 부실한 대학을 어떻게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리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간 감리사업 위반 적발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저희가 2014년도에는 10개 기관에 대한 감리를 했고요, 15년에는 15개 기관이었는데 각각 한 167건, 229건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체 300여 개 대학 중에서 불과 3%, 4%만 조사했는데 이렇게 적발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학기관이 적발된 내용을 보면 수익용 예금 적립금 계정처리 오류, 확정부채 미계상 등 재무제표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사학기관을 1차 회계감사한 감사인의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회계처리의 오류, 법령 위배 등 법령의 위배사항을 미보고하는 등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사항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입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지금 아무래도 민간 회계법인에서 감사도 하고 감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회계상 재무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대학의 회계처리와 회계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학기관은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법인 감사에 대한 감리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그렇지 않아도 작년 6월 달에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는 저희 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사학기관의 회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학진흥재단에서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감리사업을 맡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감사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그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학연금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학자금 대여사업 하고 계시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이 굉장히 싸지요? 무이자이지요?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뒤에 4년에 나누어서 갚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학자금 대여 사업인데, 그런데 이거 국적 포기자나 외국국적 자녀한테도 대여하고 있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지금은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고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법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그 문제가……

○**노웅래 위원** 그리고 어느 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 규정에 외국인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데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라면 국적 포기자나 외국 국적 자녀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을 헌법에 기재하지를 않잖아요.

대학 학자금 마련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 보면 정말 이거 욕 나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왜 안 고칩니까? 그러면 이거 훈령 고치라고, 훈령 집어넣어 달라고 교육부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부 일어나 보세요,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그런 협의가 되어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거 주면 안 됩니다. 고치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적극 협조가 아니지요. 협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주면 안 되지요. 국적 포기자와 외국 국적자에 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부총리 때문에 봐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거 부총리 청문회 때 나왔잖아요. 딸이 외국 국적 갖고 있는데 이거 다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학자금 재테크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거 바꾸세요. 훈령이 없어서 주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노웅래 위원** 교육부 여기 누구 있어요, 나오

신 분 없어요?

○**교육부학교정책관 신익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교육부 기획실장, 이거 조치하세요.

이사장, 이거 바로 고치세요. 훈령 핑계대지 마시고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럴해저드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훈령 타령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훈령 고치세요.

그리고 사학연금공단 자금관리 이거 18조 운영하고 있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13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18조, 그렇지요? 그런데 수익 관리를 하는 자산운영위원회, 투자위원회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이것은 안전성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 데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지요, 경영관리본부장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바뀌어야지요. 각각 해야지요. 다른 사람이 해야지요. 안전성 위주로 관리하는 사람이랑 수익성 위주로 관리하는 사람이랑 달라야지요. 이 사람이 슈퍼맨입니까? 체크 앤드 밸런스 (checks and balances)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지요. 그렇게 하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개정하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18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엉터리 자료, 지금 하고 있다고 이름 바꿔서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위에는 리스크관리위원장이 경영관리본부장이라 하고 밑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고쳐 가지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바꾸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노웅래 위원**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노웅래 위원** 이사장님 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은 8년 동안 매년 2번씩 평가를 했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작년 7월까지 다 평가 90점씩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만 14점 받았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노웅래 위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거의 사기잖아요, 사기?

교육부 누구 나오셨지요? 담당 국장 아까 있었지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노웅래 위원** 관리감독 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관리감독이 소홀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8년이잖아요. 아니, 90점 맞던 것이 14점…… 이것은 사기이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처음 했던 데가 산학협력단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희가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용역비를 제공을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용역 제공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용역비를 제공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용역비를 제공해서 여기서 했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거 지금 지도 만드는 것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노웅래 위원** 동북아역사지도 만드는 것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노웅래 위원**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단 구성원?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사업단 말씀이  
시지요?

사업단은 각 대학의 교수입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도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노웅래 위원** 교육부도 이것은 관리책임 철저히  
져야 돼. 왜? 산학협력단에 교육, 역사 전공한  
사람만 있었지 지리학 전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  
었던 것 아세요, 모르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지금 노 위원님  
지적이 너무나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리학 전공한 사람 없  
었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지리학과 지도  
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연구팀에 안 들어갔습니  
다.

○**노웅래 위원** 지리, 지도학 배운 사람이 없었  
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지도가 나올 수가 없  
었던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너무……

○**노웅래 위원** 교육부 국장!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노웅래 위원** 관리감독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안 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45억 다 날리고,  
꿀꺽 하고서는 책은 안 나오고, 12억 원은 그냥  
인 마이 포켓 했어요, 그냥 부당 지급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감사 해야 됩니다. 특별감사 요청  
하셨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희 감독기관  
이……

○**노웅래 위원** 특별감사 요청하셨어요, 안 하셨  
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특별감사는 요  
청한 바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요청하세요.

그리고 교육부 국장!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노웅래 위원** 특별감사 교육부가 할 거예요,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거예요? 특별감사 어떻게  
할래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위  
에 보고드린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감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이  
미 사안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도 했  
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웅래 위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  
가 이것은 특별감사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에예  
요. 특별감사 해야 됩니다. 요청하세요,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협의 후 보고드  
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전임자가 했  
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감사 요청하시고요. 시시비비 분명히 가려  
서 향후 지도책 만들 때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  
록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말씀 잘 들  
었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교육부의 담당 국장이 무슨 국  
장이 나왔습니까?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역  
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특별감사를 할지 여부를 잘 검  
토를 해서 추진을 하되 이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부실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 과정에서  
의 어떤 부실은 보완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결  
과물이 상대국,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외교  
적인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검토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고 두 가지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  
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 갈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위원장 유성엽**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  
는 각도가 여러 각도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  
는데 어느 한 분야로만 치우치지 말고 종합적으  
로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이사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님.

앞서 소속 연구원 중에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정도도 답변을 하실 수 없는지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모두 다 기밀입니까, 국가기밀?

그런데 이 교과서 집필이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야간과 주말에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중에 회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근무시간에 외출을 하면서 사유를 적겠지요. 그런데 기관장님이 파악을 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기관장의 직무유기가 되고요, 만약에 기관장이 알 수 없도록 허위로 보고하고 외출을 했다 그러면 또 허위출장이겠지요.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기관장의 직무유기랑 연구원의 허위출장, 어쨌든 둘 중의 하나는 나중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책기관 연구원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냐 이것에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국책기관 연구원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배용 원장님, 김호섭 이사장님 두 분이 시기에 저희가 더 걱정이 큰 것입니다. 이배용 원장님은 2013년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교학사교과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서명에 동참하셨고요, 김호섭 이사장님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든 단체 한국현대사학회 이름을 올리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연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자꾸 여쭙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김호섭 이사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최근 일본이 초등학

교의 중학교 입학 모의고사에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고르라는 문제—아까 조훈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그래서 대한민국을 보기 중의 하나로 제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박경미 위원 2014년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이것이 일본의 교과서 제작 지침인데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되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었을 때부터 얘기되었던 일이고요,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요 업무가 아까 업무보고 때 일본 교과서 분석 및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일본 가서 학술대회 하고 자료집 발간한 것 이상 뭐 하신 것 있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아까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일본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및 사회교과서들을 저희가 죽, 매년 발행이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조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분석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지난 2009년 ‘일본연구논총’에 실린 논문, 화면 봐 주실까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겠습니다. “과거사 현안은 일본 국내정치 현안이기 때문에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한국의 대일외교목표가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과거사 현안이 외교쟁점이 되지 않도록 양국이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박경미 위원 이러한 인식을 가진 분께서 우리 독도를 지킬 막중한 책임을 가진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저는 몹시 아이러니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제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료 1쪽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목적’ 이것과 달리 어떤 부분을 추가하셨느냐 하면,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재단의 목표와 임무는 역사갈등을 넘어선 미래지향적 현존의 단계를 모색한다.”

그래서 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역사문제 왜곡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기구인 줄 알았는데 미래지향적 현존의 단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이 재단의 기본목적이 조금 무게중심을 옮기신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논문에서 진술하셨던 것과 오늘 말씀하신 그런 재단의 목적이 좀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 제 논문은 교수 시절에 제 개인적인 소신에 의한 것이고요, 제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온 다음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목적 및 정관에 아주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시각에서는 그게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지도를 받아서 잘 채워 나가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아까 논문에 진술하셨던 부분 중에서 혹시 수정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자연인, 교수로서의 시절에 작성하셨던 논문과 지금 재단 이사장님으로서는 조금 생각이 바뀌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것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박경미 위원님께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그 생각에 있어서, 사관에 있어서의 변화 사항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지도 45억 날린 것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저는 동북아역사지도 이외에도 이 재단의 사업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단이 2014년 10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공모를 하나 했습니다, 고조선연구기획이라는. 94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었는데요. 일자를 보면 10월 22일에 공모를 하고 10월 말에 결과를 발표해서 이 과제가 시작이 됐고 중간보고서 제출이 11월 20일, 최종 결과보고서가 12월 10일, 정말 초고속입니다. 거의 40일 만에 1억 원짜리 고조선연구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동북아역사지도뿐 아니라 이 연구재단에서는 왕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1억 원짜리……

한 10초만……

○**위원장 유성엽** 예, 그러시지요.

○**박경미 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서는 매번 과제

를 40일에 1억 원짜리 과제 이렇게 발주를 하셨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2014년도 발생한 일이라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앞으로……

○**박경미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안 이런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앞으로 박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과제에 대해서 더욱 충실하게 선정을 하고 진행 과정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10초는 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든지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평생교육법의 목적이 뭐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 있고요, 평생교육법 19조1항에 의거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200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헌법 31조제5항에 보면, 여기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오늘 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헌법 조항·조문이 틀리게 표시되어 있어요. 32조로 되어 있는데 31조5항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수정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교육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모든 국민’에는 장애인이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오늘 제출하신 업무보고에는 단 1줄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그 부분 관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자, 특수교육법 제33조 읽어보셨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특수교육법을 작년에 읽어서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나경원 위원** 지금 그것은 교육부 특수교육과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3항을 읽어보면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이야기하는 거 맞지요? 원래 평생교육진흥원이다가 이름을 바꾼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한 것 있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저희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출연금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간에 장애인에 관한 것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부 소속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자꾸 교육부랑 평생교육원이랑 핑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줄 있었어요, 어제 보고에도.

여기 법에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됩니다. 단 1건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한 줄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평생교육법 개정해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생기지요?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지금……

○**나경원 위원** 법 개정이 됐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알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교육부가 업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국립특수교육원은 소속 기관이고 저희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래

서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원이……

여기 보면, 특수교육법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지금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하나도 안 했었고요, 평생교육원은. 그리고 어쨌든 내년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이것 관련해서 한 줄이라도 저는 보고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일반 현황하고 여러 가지 업무 분야에 대해서 다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이 하고 있는데요 국립특수교육원이 그동안 나뉘었다, 앞으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 산하로 갈지 우리로 갈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법에 따른 의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법 33조3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나경원 위원** 지금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서로 미루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은 어느 기관도 제대로 담당해 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까지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특수교육법 33조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평생교육센터 부분은 국립특수교육원하고 업무 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원래는 평생교육원에서 관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고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 6월부터 시행이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는 데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33조3항에 따른 의무는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획

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평소에 위원님께서 특히 소외계층들을 위한 교육에 많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몇 달 전에 그 센터가 새로 개설이 되기로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직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위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꾸 법하고 다른 해석들을 하고 법하고 다른 업무분장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특수교육법에 보면 제33조3항에 따라서 평생교육원이 그동안 프로그램 개발했어야 되는데 전혀 개발하지 않았고요. 지금 평생교육법 19조의2 개정에도 보면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가.

그래서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전체는 평생교육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예, 33조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나경원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같은 것 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이런 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수등급 판정을 받아 오셨어요.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 유성엽** 예, 그러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최우수 판정……

○**나경원 위원** 그동안 이렇게 경영평가 괜찮게 받아 오셨는데요, 최근에 하시는 사업 중에서 장서각연구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21세기……

○**나경원 위원** 저는 21세기장서각연구사업이 발굴 중심의 한국학에서 현대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료 번역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중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7만 점 중에서 지금 60점밖에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60점보다는 조금 더 진척은 됐는데요 아주 예산상으로 상당히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언제 다 하시겠어요? 이렇게 계획은 창대하고 내용도 좋은데 자료 접근 용이성도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당연히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 좋은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총동원해서 한정된 예산이라도 더 많은 탈초·번역·스토리텔링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으로 가기 전에 교육부에서 아까 평생교육하고 국립특수교육원 관장하는 국장이 어느 국장 인가요, 나오신 분이? 교육부에서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가장 가깝게……

○**교육부정책기획관 나향욱** 지금 담당 국장이 없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없어요? 그러면 잘 전달을 해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이 소속 기관이 뭐냐 산하기관이 뭐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소속 기관이 뭐든 산하기관이 뭐든 업무 분장을 정확하니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상임위 석상에서 그런 문제 가지고 지리하게 질문 답변 이어지지 않도록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정책기획관 나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다음은 우리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저는 마포울의 손혜원입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에 참 관심이 많고 부담 또한 많습니다. 우리 문화를 우리 국민들이 그 깊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

움이 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대중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것을 소홀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 중에 제가 유심히 봐 왔던 곳이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제가 이배용 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를 봤더니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한국 문화의 심층 연구, 교육을 통해 한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의 좌표를 탐구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충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실 것 없을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저희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산업화 물질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 민족문화의 좌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과제 그다음에는 저희한테 많은 콘텐츠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고전적들이 많고, 그것이 우리 문화의 세계 브랜드화를 하는 데는 아주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수장고에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탈초·번역·스토리텔링 해서 현대화·세계화하는 작업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민백사업이라든가 향문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지방 문화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서도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이 대중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어제 한글박물관을 가봤습니다, 일부러. 제가 내용을 질문하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아주 또 절망을 했습니다. 한글박물관인데 왜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글에 대한 연구가 일반 상식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데에서 한글박물관에 대한 내용, 콘텐츠 부분들을 좀 많이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려운 한국 문화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이 인물 중심의 자료들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을 얘기할 때 가장 쉬운 것은 세종의 창의력을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발명품으로서의 한글을 봐야 하는데 이 내용만 갖고, 과학적인 부분이나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성에 대한 부분은 보지 않고 그냥 걸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그 박물관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화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물 중심으로 우리 문화를 풀었을 때 굉장히 쉽고 전달력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해야만 세계화가 쉽습니다.

책을 보니, 제가 인터파크까지 한번 다 봤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오는 책이 과연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가, 다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잘 안 팔리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제가 5년 동안에 책들이 어느 정도 출간이 됐는가를 봤더니 311권, 2011년부터 지금까지, 2월 달까지 311권의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외국어로 된 것이 10% 남짓, 34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소중한 자료들이 작업이 되면서, 추후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바로 이것이 국제화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중화 부분 그리고 세계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좋은 말씀이시고요. 인물 중심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쉽게 풀리기 때문에 요즘에 인문 스토리 연구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하면 교과서, 초등학교에도 멘토로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격조 있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한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공감해서 어제부터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에 한글의 서체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용의 다양성과 계층간의 소통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스토리로 엮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들이 되시면 우리 교문위 위원님들이 오셔서 저희 아카이브도 보시고 한글 전시회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1940년에 훈민정음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글이 고대문자를 모방했다는 등 고전기원설로 얘기했고, 몽골문자를 흉내 냈다는 등

이랬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례본에 보니 발음을 하는 혀나 입의 모양에서 기억과 니은과 리음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인문학적으로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저는 한국학연구원의 가치가 훨씬 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부분 하나는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학연구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의 구성이나 이걸 죽 제가 다 봤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예.

○**손혜원 위원** 그런데 문화에서 전통문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살아서 남아서 계통을 이루어서 지금 전해지는 것이 전통문화입니다. 이것이 옛것이고 오래된 것인데 그다지 가치가 없는데 할 수 없이 떠받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계통을 이루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온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인원도 확충해 주시고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이걸 세계화시키면서도 대중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전통의 가치를 조금만 더 살려 주신다면 저희가 전통문화를 살려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제가 바로 그런 일을 그동안에 죽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전통문화를 살리고 또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손혜원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출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허향진 대학협의회장님 그리고 전찬환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이승우 전문대 회장님 그리고 황보은 사무총장님 계시지요?

누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7분 동안 토론한다 생각하시고요. 비교적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는 대학협의회의 목적이 자주성과 공공성 그리고 대학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대학 발전을 이루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염동열 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해 주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완벽하게 충족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적당히 느슨한 조직입니까? 그래도 203개의 대학교가 모여서 그 역할을, 강력하게 현장을 전달하고 학교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총장님의 생각이나 학생들의 생각, 교수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래도 학교정책에 반영하는지, 그러니까 느슨한 조직이나, 강력한 조직이나, 둘 중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저는 느슨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염동열 위원** 느슨한 조직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결국은 교육부가 예산, 여러 가지 인사 또 정책과 사업들을 다 관여하기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경계선에서 총장님들과 협의회 구성요원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의 획일적인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도 따라 줘야 합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저는 대학이 발전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평소에 이사회를 통해서 또는 총회를 통해서 총장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모아진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건의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빈번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서도 상호 협력관계에 있어서 또 상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장님들이 그런 경계선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학교의 발전과

또 교육의 발전, 이런 경계선에서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특성화 학교라고 하는 양날의 칼을 대학교에 찢지 않습니까? 사실 총장님들이 교육부에 굉장히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요.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가 확일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정성지표를 줘서 평가해서 퇴출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내년도부터 2023년까지 16만 명이 감축되지 않습니까? 거의 사오십 % 학교가 퇴출이 돼요. 내년도에 당장 4만 명이 감축이 되어야 되고 일반 학교가 2만 5300명 정도 그리고 전문대학교 1만 4700명 정도가 감원·감축이 되는데 시골 학교 같은 경우, 지방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할 수는 없어요. 교육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지표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미국의 주립대학을 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학교끼리 권역별로, 거점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과가 충돌하거나 대학원이 충돌하거나 이것을 다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퇴출할 때 자연스럽게 국가적 낭비 그리고 현장에서의 사회적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퇴출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시설, 그 많은 학교들이 준비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다가 꿈쩍없이 당한다고 한다면, 퇴출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재앙이에요.

지방은 학교의 폐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경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몰락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미뤄 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전문대협회장 이승우입니다.

저도 염동열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인데 대학이 4000개입니다. 저희 인구가 5000만인데 대학이 4년제 200개, 전문대 130개입니다. 대학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더라도 새로운 교육수요가 있습니다. 노년층, 성인학생, 평생학습 또 외국에서 들어온 산업인력을 교육시켜서 우리나라 산업인력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을 저희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주면 줄어드는 학령인구 말고 새로운 수요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교육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교육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을 짜시라는 거예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냥 앉아서 구조조정에 퇴출 학교끼리, 학교끼리 학교끼리 경쟁을 해서 결국 퇴출이 되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외국인을 초빙해 오거나 평생학교를 대안으로 하거나 이런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충돌하는 과끼리 통합을 하고 그래서 거점 중심을 통해서 불가분 퇴출 학교는 준비하게끔 그리고 우리가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퇴출 학교가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끔 법안을 내고 있거든요. 계류중인데 저는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의견, 이런 전략을 대학협의회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대학협의회도 하고……

○**염동열 위원** 한번 보고서 교육부에서 잘 말씀 안 들으면 이런 탈출구를 지금부터 대학총장님들이 모여서 하세요. 그냥 내 학교만 살아남겠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대학협의회장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대에다가 제가 이걸 요구를 했어요. 내 학교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권역별로 거점 학교끼리 서로 협의하자, 그러면 국가적인 낭비도 줄일 거며 또 퇴출 학교도 실제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왜? 자기 학교만 살아나려고. 결국은 삼사십 %가 퇴출이 됩니다.

오늘 이승우 회장님 그리고 허향진 회장님, 회장님과 총장님 다 오셨잖아요, 전찬환 총장님, 황보은 총장님. 상근 안 하시지요, 지금 두 분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저희들은 비상근입니다.

○**염동열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장님 두 분 같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협의회 구실이 이런 초점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일적으로 교육부에서 주는 정책과 사업에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또 의견을 간헐적으로 내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

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런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말씀하세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16만 명 감축, 구조조정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게 그리고 퇴출되는 학교가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이 줄어들게끔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학협의회와 전문대학협의회가 맡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회 하시도록 하세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승우 회장님한테 하나 여쭙 보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나서……

지난번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구인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심각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현장에서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제도개선을 해 주면 용이하게 인력도 공급이 가능하겠나 또 학교도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교육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와도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요약해서라도 그걸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2분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그러십시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100만씩 태어나던 시대가 이제 42만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50만 이하로 내려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산업인력

이 부족합니다. 지금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더 이상 출산율이 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인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는 뿌리산업과를 만들어 가지고 3D 업종이면서 기본적인 중소기업종의 산업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 외국 유학생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은 1년에 10만만 데려와도 우리 산업인력 중소기업체한테 충분한 맨파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외국 인력을 그냥 E9비자에서 단순노무직으로 데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불안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문적 인력으로 바꾸는 교육을 저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담당하게 하면 학생 수 줄어든 것을 우리가 그 수요를 가지고 학교를 살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0만씩 태어나던 인구가 50만으로 줄어든 산업인력을, 외국인력을 저희가 활용하면 중소기업체들이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지 높지 않은 임금으로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노동부나 산자부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담당 비자를 확대해 줘야 됩니다. 뿌리산업 인력을 상공부나 교육부나 노동부에서 제대로 운영하지만 법무부에서 비자를 늘려 주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교육부만이 아니고 전 정부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인구절벽, 소비절벽, 산업인력 부족 사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주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라든지 국회에서도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 주어야만이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들도 교육부에서 검토할 사항들은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은 다른 부처에 협조를 구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들도 잘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허향진 회장님, 맞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강길부 위원 OECD에서 발표한 ‘방정식과 불평등’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수학 양극화가 OECD 최하 수준이다 이것 본 것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위원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이거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대학에서는 계층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시제도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입학정원의 확대 이것을 정원 외에서 지금 한 11% 경제적 약자들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 내에서도 그러한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것도 또한 그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시 방안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제가 입시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소에 의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 입장에서나 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학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교육을 안 시켜 주느냐? 대학 졸업해 봐야 기업에 가서 3~4년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교육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도 대학입시제도가 잘못돼서 교육이 잘못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입시제도를 예를 들면 무슨 영어회화가 꼭 필요하다면 일반 라이팅(writing)이 아니고 영어회화를 바로 하게 되면 교육제도가 그렇게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시제도가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보다도 사회 수요에 맞

는 인력 공급을 위한 입시제도가 되면 교육도 그런 식으로 될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동감하고요. 지금 사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을,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재정 지원해서 대학에 도움을 주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그것이 보다 더 폭넓게 많이 지원이 되고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위원 아까 두 가지 중에서 또 하나는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창의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주입식으로 하니까 객관식으로, 사지선다식으로 하는 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창의력을 키울 수 있으려면 그것도 입시제도가 바뀌어져야 같이 바뀌는 것 아니냐……

창의력 함양 다음에 사회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 수준에 대한 입시제도 그다음에 교육과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입시제도를 바꿔야 되고 다음에 시험 출제 방식도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공감하고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그러한 학생들의 잠재력과 소질을 파악해서 그 학생들이 맞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으로 더 많은 입학전형제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매칭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강길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기초실장님 계시지요? 나오셨습니까? 이것 담당하는 국장 없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대학정책관입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입시제도하고 교육과정을 사회나 기업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 달라 그다음에 입시제도도 그렇게 바꿔달라, 출제도 다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그래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창의력 함양이라든가 이런 쪽

으로 나가고 있고요. 입시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교협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수능 위주의 오지선다형 인재를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전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학 자율의 문제입니다만 대교협을 중심으로 그런 전형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지금 말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못 시켜 주느냐 이것 아닙니까? 이론교육 아무리 시켜봐야 우리한테는 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실무교육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대학에서는 지금 현장실습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현장실습 과목들을 필수화하거나 아니면……

○강길부 위원 이것은 그냥 말로써 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서 생각을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알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장님, 계시지요?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생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또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아, 시간이 없습니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시지요.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이제 다음 순서는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산하 유관기관 책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장학재단 이사장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송기석 위원 혹시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대출 받아보셨습니까? 장학금은 많이 받아보셨겠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장학금으로 중학교 때부터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면 학자금대출 안 받아 보셨겠네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아니요, 학자금대출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송기석 위원 없었습니까?

교육부에서 오신 실국장님들 중에 학자금대출 받아보신 분 있어요? 없습니까? 다들 그러면 학자금대출이 필요 없을 정도의 경제력이었나 보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게 아니라 송간사님,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다 빚을 내서……

○송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도 81학번인데 86년도에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나서 갚았는데요, 제가 흠수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님, 학자금대출 만약에 못 갚았을 때 연체이자 알고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몇 %입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연체이자 과거에 7%에서 5.8% 갔다가 지금 3.1% 감면해 줘서 2.7%……

○송기석 위원 그것은 이차이고요, 거기에다가 연체를 하게 되면 다시 10%가 또 가산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13%……

○송기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연체되면 또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될 수도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송기석 위원 요즘 정말 젊은 청년들 대학 다니면서 학비가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를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교육부 담당자는 누구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이진석입니다.

연체를 결정은 관련 부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금리라든가 기재 부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렇게 답 하실 게 아니지요. 지금 이것은 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아납니까? 일반 사업대출이 아니에요, 신용대출도 아니고. 정말 우리 국가 미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 준 건데 물가상승률 정도만 이렇게 해서 상환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납니까? 그리고 신용유의정보로 이렇게 등록하는 것도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학생들 편에 서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록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10년 후에 갚기는 했는데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뭐 학자금대출로 인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가졌으나 뒤에 제대로 상환 못 했을 때 다시 상환할 때는 최대한 배려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말 나온 김에……

2015학년도 대학 구조조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D·E 등급으로 이렇게 받은 학교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송기석 위원** 거기 1번하고 2번 유형의 국가장학금 받은 그런 학교에는 더 이상의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 아납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런데 혹시 실태 파악됐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지금 제한되고 있고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더 지급 못 받게 되는 게 학생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학교 경영자가 잘못된 것 아납니까? 그분들 실태 파악해서 어떻게 구제해 줘야 되는 것 아납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교육부하고 적극 의논해서 그 부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실제 그 대학교에 해당되는 학생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진정을 해 왔

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알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대학교육협의회장님, 그냥 앉아서 하시지요. 앉아 계십시오.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나 염동열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셔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대학교육협의회를 우리 한국 대학교무처장협의회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교부 위탁사업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 실제 우리 사회의 지성을 상징하는 총장님들 협의체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있지요? 그게 결국 고교 중심의 대입전형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실시된 건데요, 이게 학부모하고 수험생들의 대입 부담경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고교 교육 정상화에는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서 또 학부모나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기석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적어도 총장님들이 모인 그 협의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학종, 지금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이른바 상위권 대학 가기 위해서 학종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한테 불리한 금수저라는 비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종 이것에 대한 컨설팅 업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치동에 가면 또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난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종의 문제가 심지어는 사실상의 기여금 입학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 대학 총장님들에게 실태 파악도 해 보고 이 문제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알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예.  
 ○송기석 위원 회장님, 혹시 이것 아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송기석 위원 이게 '대입정보 119'이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송기석 위원 이 책자 만드는 데 예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저는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게 한 4950만 원이고요, 이 예산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00부 만들어서 전국 고등학교에 1부씩 보내 줍니다.

이게 참 내용은 잘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국 2400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한 학교에 열 학급만 해도 벌써 이게 3000부 정도,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육부 담당자 누구신가요?

-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대학정책관입니다.  
 ○송기석 위원 이것을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필요해서 더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답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

- 송기석 위원 잘 몰라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송기석 위원 3000부 외에는 더 없으니까 필요하면 학교에서 사라고 한답니다. 우리 대교협이 돈 받고 하는 출판사 아니잖아요, 이것 컨설팅 업체도 아니고?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게 3억 6000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역사교과서 홍보비에 48억 이렇게 쓰면서 3억 6000 정도, 학교에 충분히 좀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청주 흥덕구 도종환 위원입니다.

김호섭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도종환 위원 동북아역사지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도종환 위원 8년 동안 45억을 들인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19대 때 국회 동북아역사특위에서 동북아역사지도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2015년 9월 이후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사장님, 이번 달에 수정분에 대한 재심사가 있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1월 달에 있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1월 달에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아, 죄송합니다. 재심사는 5월 달에 있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재심사 결과 무슨 등급 받았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ABCD 중에 D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D등급은 몇 점 이하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60점 이하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점수로는 몇 점 나왔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점수로는 44점 나왔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D등급에서도 한참 밑이네요. 만약에 E, F등급 있으면 거기 해당될 정도의 점수가 나온 것이네요.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점수상으로는 도 위원님 지적대로입니다.

○도종환 위원 재단이 연구팀에게 수정을 지시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통계를 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반영된 것도 있고, 저 노란 도표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점선면 기호 및 범례에 대한 수정 지시는 0.7% 반영이 되었고요, 지명 가독성은 0.98%, 투영법은 6.45%만 반영이 되었어요. 재단에서 지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수정하라고 지시하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 총평을 보니까 '제출된

결과물을 절대로 출판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기준으로 평가할 때 역사지도로서의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수개월 내에 보완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보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간을 3년 연장해서 연구하게 해 준 것인데 8년 동안의 결과물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김민기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지도를 보면 한 장의 지도에 무려 11개 정도가 지적될 정도로 이게 8년 동안 연구한 게, 기간을 3년이나 연장해 줘서 연구한 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제가 직접 연구원들한테 중간보고 같은 것 받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대별·지역별 사회·경제적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지도 만드는 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있었다든가 대홍수 또는 지진 이래서 사회 변화가 있거나 경제적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 다 들어간다, 전쟁으로 인해서 성을 뺏고 빼앗기고 하는 것까지 다 반영된다, 또 천도했다든가 이럴 경우의 내용들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시기별로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다 넣어서 그런 지도가, 정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축척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축척 설정이 틀린 그런 지도라서 44점짜리 지도다,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도 지금 도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업단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사실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업……

○**도종환 위원** 이게 이사장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지도 만들자고 시작한 것이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도종환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이 반영된 듯한, 그러니까 만리장성 같은 것을 표기한 것을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반영된 듯한 지도라는 것을 보고도 놀랐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지도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이 반영된 듯한 지도 이런 것을 보고도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아주 기본 자체가 안 된 지도라는 거

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출판해서는 절대 안 되는 지도라는 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더구나 인건비 초과 집행—유은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각종 수당 부당 집행, 기자재 부당 구입, 연구비 미납 또 심지어는 연구비 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무슨 브라보라이프 26만 4000원, 스타비아 13만 원, 오이도 주점 4만 3000원 등등, 이게 도대체 국가 예산을 갖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8년 동안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도종환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그렇게 사업단에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위원** 잠깐만요, 박성민 부단장님 어디 계세요?

마이크 좀 잡으세요.

박성민 부단장님!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도종환 위원** 지금 얘기한 인건비 초과 집행, 수당 이런 것 등등 다 이것 다시 반납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각 대학에 환수조치 했습니다. 이제 반납받을 계획입니다.

○**도종환 위원** 정확하게 반납받으세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도종환 위원** 감사 안 하십니까?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감사에 준하는 사안조사를 이미 해서 이런 것을 다 밝혀 낸 겁니다. 그래서 16명 재단 직원에 대한 징계를 했고요, 중징계 1명 포함해서. 그리고 환수조치를 지금 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이행 안 될 시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부단장님, 역사지도 제작 다시 추진할 거예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이게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연구였지만 제가 듣기에……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추진할 거

예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지금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그동안 들인 공이 너무 아깝고요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위원** 잠깐, 그러면 예산을 다시 국회에 신청할 거예요, 요청할 거예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아니, 감수 용역 예산으로요 이미 5억 원이 올해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도종환 위원** 아니, 감수만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여기 아까 평가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감수 예산 5억 정도면 이것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올해는 일단 그렇고요……

○**도종환 위원** 올해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 세우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해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아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재단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45억 들어간 것보다 몇 배 더 들어가야 되지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완벽한 지도가 나오려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도종환 위원** 국민 세금을 45억 날리고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또 신청하고 그럴 거예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아직 종합계획이 안 나와서요 위원님, 그것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사업이 중국에서도 30년 걸린 사업이라고 그러합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학과 지도학이 겹치는 분야라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고, 이번에 연구에 부족한 게 많았지만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있었고 이게 일종의 토대 연구의 의미는 있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동북아재단에서……

○**도종환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부단장님.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도종환 위원** 45억 날리고 나서 ‘토대 연구’라는 의미는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아니, 그런 지적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종합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게 그냥 멈출 수는 없어요.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이 계속되는 한 우리도 우리 역사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도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들어갈 게 뻔해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다시 계획 세운다고 하지만 국회에 또 예산 신청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국민 세금, 국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탕진하다시피 날리고 나서 다시 신청한다는 것, 이런 식의 자세, 이런 식의 관리감독의 부재, 이렇게 안일한 자세,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시 신청하는 것, 이것 국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아 줘야 됩니까?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이번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동북아재단도 재단 연구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고요. 교육부도 관리감독 체제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교육부의 대안 언제 가져올 거예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동북아재단에서, 일단 사업 담당기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들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7월 중에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요.

○위원장 유성엽 예, 말씀하십시오.

○유은혜 위원 지금 도종환 위원님 또 김민기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역사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구요. 아까 제가 교육부 특별감사 요청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안조사를 해서 이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징계한 게 지금 경징계 7명, 경고 8명, 16명 그 정도 조치 취한 겁니다. 이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교육부가 사안조사로 징계 조치했다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이런 징계 조치로 모든 것이 다 매듭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말로 하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 이 사안과 관련된 특별감사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좀 정확하게 말씀 전달해 주시고 지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질의 맨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이장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의 우리 역사지도 출판 불가 문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싶고, 또 동북아역사재단도 관리감독에 대한 큰 책임이 있고, 또 교육부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이장우 위원 이것 종이 지도지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틀라스도 구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적 수준으로서의 역사지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틀라스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종이책 형태로만 한 것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쪽에서도 디지털화를 노력은 했는데, 그런데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면 매우 수준이 낮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교육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 전체에, 국회에 다시 보고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이장우 위원 행복기숙사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행복기숙사가 상당히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이 정책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행복기숙사를 지으면 대학가 인근 원·투룸하고 다중주택 가지신 분들하고 갈등 없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일부 지역은 그런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이장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대학 내에 기숙사를 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다중주택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월세 받고 했던 분들은 아주 생계가 위협받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대학가 상권이 침체되면서 대학가 상가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교육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토부하고 또 공동사업 하는 것이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국토부의 도시주택기금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이지요 대학 내에 기숙사를 대규모 건립하고 이것보다 이 돈으로 대학가 인근의 대규모 다중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일부.....

○이장우 위원 대학가 상권도 보호하고, 또 대학 인근에 전 재산을 털어서 했던 분들에 대한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또 아이들 기숙하는 문제도 저렴하게 해결하고, 저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한 가지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저희 재단에서는 물론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내에 기숙사를 짓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특히 특정한 어떤 입지적 여건으로 인해서 주변의 원룸이나 투룸들을 매입해서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대학에 그 매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대학교 기숙사를 군대식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것 말고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를 소규모로 해서 대학 인근에 1기숙사, 2기숙사 해서 대학교에서 시설 관리만 해 주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정책 전환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어 교육지원 정부사업이 세종학당하고 한국문화학당 이 두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세종학당은 또 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고 한국문화학당은 한국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에게 한국학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대대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자로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공자아카데미, 공자학원을 지금 세계에 운영 중인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아마 한 120개 나라에 이미 공자학원을 운영해서 자국 언어하고 문화 이런 부분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돈도 중국 정부의 교육부 산하의 공자학

원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약 맺으면 인건비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교사들 파견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외국에 직접 파견하는 것이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 이런 것에 대한 아이들 지원만큼은 더 확실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중국 정도의 이런 역량이 안 되더라도 우리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기획처장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학을 하기 위한,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데 저희 한국학대학원에서는 일단 오면 테스트를 해서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좋아 가지고 저희 대학원 출신들은 한국말 하기뿐만 아니라 쓰기, 잘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제 뜻은. 현재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산 지원도 좀 하고 더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저희들이 정부에서 도와주시면 그동안 쌓아 놓은 노하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 지적해 주신 좋은 문제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교육부 말이지요, 이 사업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이든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한류 한류 해도요 진짜 한류는 우리나라 문화도 제대로 이해하고 언어도 제대로 하는 이런 외국인들을,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다시 내보내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 그리고 우리 재단을 확대도 좀 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마치면서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가 관심도 있고 좀 의문이 들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해외투자 관련인데요 지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전체 투자자산 중에서 해외투자의 비중이 한 20.44%, 2조 7342억 원 규모이고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그 비중이 전체 중에서 32.6%이고 6조 5707억 원 정도를 지금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률을 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체 수익률이 3.76인데 해외자산의 수익률은 3.64로 전체 평균에 조금 못 미치고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약간 높기는 합니다. 해외 부분이 6.1% 수익률이고 전체 투자자산 수익률은 5.8%로 약간 높은데, 저는 의문이 수익률이 이렇게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외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해외에 투자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투자 결정 절차가?

먼저 우리 사학연금 이사장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자산을 자원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국내와 해외에,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를 자산배분을 하게 되고, 자산배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투자자문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거쳐서 배분을 하게 되고 거기서 배분이 지금 권고사항이 국내의 수익률이 나쁘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권고가 지금 오고 있어서……

○위원장 유성엽 권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어디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투자자문위원회하고 금융자산위원회, 두 군데에서 협의를 거칩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런데 실제 실현된 수익률을 보면 투자자산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학연금의 경우 3.76%인데 실제 해외 부문에서 수익률은 3.64라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다는 말이지요, 전체 평균에 비해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해

외 투자에 대해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로 저희 내에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실무자심의회가 있고 또 투자심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까지 포함된 투자심사위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투자 전문인력들이 관여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성엽 혹시 기재부나 정부로부터 해외 투자를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권유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저희는 전혀 투자심의 과정에서 외부 입김, 또 이사장조차도 그 투자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저는 이 해외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같이 수익률이 아주 높다면 몰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해외투자를 하면 국민소득을 해외로 이전시켜 가지고 그만큼 어떤 수요 감소를 통해서 경기부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저는 기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산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당 기관의 문제도 되지만 전체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 주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率** 위원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우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기획처장입니다.

○**李恩率** 위원 원장 어디 가셨나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4시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오픈아카데미 수료식 행사가 있어서 허락을 받고 가셨습니다.

○**李恩率**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사실 향토사학계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라든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맥이 끊겼던 대규모 민족문화 집대성 사업을 지역주의 방식으로 재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맞습니다.

○**李恩率** 위원 하지만 동 사업은 한중연의 한국학 발굴 및 진흥이라는 비전에 걸맞지 않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지엽적이고 추진 실적도가 높지 않아서 사업의 추진 주체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2004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229개 기초자치단체 모두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맞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장우 간사와 사회교대)

○**李恩率** 위원 그런데 12년, 13년이 지난 지금 까지 66개 지자체에 대해서 편찬을 완료해서 진척도가 28.8%밖에 되지 않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李恩率** 위원 시도별로 보면 한 곳도 완료되지 못한 곳이 네 곳이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곳이 163개 지자체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李恩率**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연 평균 한 6개꼴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추세라고 그러면 모두 완료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추진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매칭 펀드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하다가 지금은 70 대 30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70%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렇게 늦어지게 된 원인이 있고…… 저희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 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몇 년도 내에 끝낸다고 하는 장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李恩率**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이 예정된 곳이 청송 한 곳밖에 없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李恩率** 위원 어디 또 있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지금은 광주광역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 7개 군·구가 되니까…… 지금 금년도에 해야 될 계약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李恩率** 위원 그러시면, 지방자치단체가 70이고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30%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229개 지자체에 모두 지방문화원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예 이 사업을 지방문화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을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녹아 있는 민초들의 삶의 애환이 중앙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필진이라든가 연구진을 그 지방자치단체에다 저희들이 완전히 일임해서 그 지역에서 선출되는 업체 여기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李恩率** 위원 그렇다면 굳이 한중연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방에 의한 향토문화 발굴을 통해서 지방의 문화 창조라든지 향유,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오신, 아까 정책기획관인가 누가 오셨지요?

○**교육부정책기획관 나향욱**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李恩率** 위원 지금 교육부가 말이지요, 업무를 죽 보니까 굳이 중앙에서 안 하고 지방으로 해야 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양 업무 리스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조금만 넣어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1분만 넣어 주세요.

○**李恩率** 위원 그래서 업무 리스트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은 사실은 지방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지방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부 업무 리스트를 총괄로 해서 지방으로 이양할 것 아닌 것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정책기획관 나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이은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민동석 사무총장님, 제가 지금 사무처 운영규정을 찾았어요. 제4장 복무, 8쪽에 보면 ‘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직무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직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무처 직원들이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과거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과거가 아니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동섭** 위원 알았어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그것을 허용하되 단서 조항을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도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법 해석을 할 줄 알아요.

동 법률로 유네스코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여기 모든 것을 봐도 민간인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유네스코에.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제가 표현을……

○**이동섭** 위원 잠깐만……

그러므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찰청장도 경찰이고 서울경찰청장도 경찰입니다. 국민의당 대표도 당원이고 이동섭 국회의원도 당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직원의 범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기를 총장께서 공직자 재산신고 하셨다고 얘기했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왜 공직자도 아닌 민간인이 재산신고 하셨나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공직자 거기에 규정상 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동섭** 위원 규정상 들어가니까 공직자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공직자는 맞는데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에 관한 것은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 대상에 안 들어가 있고……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잘 알아요. 나도 정당을 한 20년 해서 잘 알아요. 정당법도 알고 법도 알고 하는 사람인데,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공직자 신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섭** 위원 저도 이걸 지금 찾아서 연구를 했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이동섭** 위원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민간단체는 아니예요. 그렇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공직 유관단체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이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정정하시겠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그러

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총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이동섭 위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시인했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전문성도 인정되고 일 잘한다고 소문난 것 같아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감사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지만 자꾸 선거에 왔다 갔다 하면 말이지요, 그걸 자꾸 반복하면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같은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박근혜정부의 회전문 인사가 지적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치나 국회의원 하려면 그만두고 하세요. 저도 국회에 들어오는 데 20년 넘게 걸렸어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짜로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국회의원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아까 오전 질의에서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교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고, 상당수의 대학 교수님들이나 대학 구성원들이 대교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교육의 새로운 모습, 즉 말하자면 지금 알파고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은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구 교육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토론과 대안 그런 것들을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님들이 모인 대교협에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지금 대교협에서 2030 미래포럼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매달 발표하고 토론하는데 알파고 시대에 우리 대학 교육이 가야 될 길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걸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지금 교육부장관이 몇 번째 장관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대충 몇 번째일 것 같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한 30대쯤 되지 않을까요?

○안민석 위원 문용린 전 장관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안민석 위원 몇 번째 장관이셨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40대입니다.

○안민석 위원 2000년에 하셨는데 그때가 40대예요. 40대 장관이셨으니까, 지금 한 몇 번째 장관일 것 같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한 50대쯤 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57번째입니다.

대학교 입시가 그동안 몇 번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대교협 회장님 정도는 이거를 꿰뚫고 계셔야 되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제가 회장 된 지 한 3개월밖에 안 돼서요.

○안민석 위원 아니, 장삼이사, 동네 애 키우는 아줌마들도 아는 이런 것을 모르시면 되겠어요?

16번 대입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장관이 57번 바뀌고 대입제도가 16번 바뀌는 이런 교육에서 어떻게 알파고 시대의 교육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 답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이 알파고 시대에 교육 혁신, 교육 혁명을 준비하는 게 대안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초·중등교육은 이미 시·도교육청에 상당 부분 위임이 돼 있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교육부가 관여할수록 시·도교육청의 업무는 더 혼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간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고등교육특위를 설치해서 큰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도와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등교육은 지나치게 정부가 관여를 해서, 관여하는 방식도 예산으로 아주 치졸하게, 프라임 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성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학을 줄 세우기 함으로써 대학 지성인 사회에

서 대학 교수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대학, 고등교육 개혁이 되겠어요.

핵심은 지금의 교육부 체제로는 알파고 시대의 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지금의 교육부의 기능과 위상은 현저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대교협 회장이신 총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개인적으로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이 57번 바뀌고 대입제도가 16번 바뀌고 또 조만간 58번째 장관이 이 정권 내에, 어쩌면 60번째 장관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교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총장님들이 한번 해 보시면 ‘대교협이 1000억 쓰는 국가기관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찬성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총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시면 되는 거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진정으로 정말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관과 토론하고 교육부 구성원들에게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대교협의 역할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저희들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안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이종배 위원** 장서각에 보유한 고문헌 유물이 17만 2117점, 맞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

니다.

○**이종배 위원** 그중에서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이 약 3만 3000건 이런데 이게 제대로 보존처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개 한 99%가 지류지요. 그렇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적문서, 족자, 서화 이런 것들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 중에서, 3만 3000건 중에서 멸실 위험이 커서 보존처리가 시급한 자료가 4604건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이종배 위원** 그중에서 국가왕실의 고전이 1740건 그리고 민간에서 구입하고 한 것들이 2800건, 그렇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정문화재 중 보존처리가 시급한 자료도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보존처리 하는 직원이 전체 7명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늘려서 7명이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종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없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7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 3만 3000건 또 더군다나 시급한 자료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다 멸실될 수도 있고 훼손이 아주 심각한 그런 자료들이 4600건 정도 되는데, 이 직원들만 가지고 이것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7명이 꼬박 해도 전체 한 30년이 더 걸리거든요, 이것 지금 하려면. 30년이 더 걸린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작년도에 대폭적으로 정부지원에 의해서 10억 원의 예산이 증액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2억 500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인력도 뽑고,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평

장히 협소합니다. 고문서의 병원이니 마찬가지로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시급하게 고전적 보존처리를 할까 하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줬으니까 이제 대책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아니지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확충해서 더 이렇게……

○이종배 위원 뭘 확충해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기자재도 확충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인원, 인력, 예산인데 지금 이것 하는 인력이 7명이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직원들의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도 이번에 늘은 게 12억 5000만 원인데 또 이게 전체 예산의 3.6%밖에 안 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자체 예산을 좀 돌려서라도, 이게 시급하잖아요.

저것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문화재, 보물…… 다음번 보세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좀도 먹고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저것에 대해서 조속히 해야지…… 밑에 것은 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보물 같은 걸 저렇게 그냥 좀 먹고 습해로 인해서 곰팡이도 먹고 이런 상태인데, 저 보물 같은 것도 저렇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이종배 위원 12억 이것 가지고 됩니까? 사람도 7명 가지고 안 되고, 그렇게 보는데……

내년도 요청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저희들은 한 10억 정도 더 주시면……

○이종배 위원 더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더 주

시면……

○이종배 위원 그러면 22억?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그렇지요. 그렇게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종배 위원 인력은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아예 외부 위탁을 주든지, 전문기관에. 그 자체에서 표면처리하고 자체에서 보존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고 또 보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박세당 문서는 사가에서 보존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중에서 우리 연구원에 기탁을 하면 잘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기탁을 받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어쨌든 대책에 대해서 여쭙 보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더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외부 위탁을 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교육부에서 오신 분 계시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입니다.

○이종배 위원 저것 상태가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예.

○이종배 위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예, 같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장우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립대의 병원이 제외돼 있어서, 오늘 서유미 대학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과 15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듣고 계시나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유은혜 위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지요, 노동부에서?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유은혜 위원** 그런데 경북대병원이 전체 비정규직 236명 중에서 25명만 상시업무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211명은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병원이 25명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외에도 86명이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교육부에서 이 차이가 왜 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유은혜 위원** 제가 보니까 2011년에 경북대병원, 칠곡병원이 개원한 후에 지금까지 영상의학과에서는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임상병리사와 같은 분들이 6개월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고 그러다 2년이 되면 계약이 해지가 돼서 병원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정규직, 일시 간헐적 업무로 계산한 게 아닌가 추측하게 되는데, 6년 동안 8명이나 사람이 바뀐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계속 바뀐다면 이게 상시업무입니까, 일시 간헐적 업무입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료기사 업무는 2년 이상 지속되어서 상시 지속 업무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은혜 위원** 상시업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유은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경북대병원에서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보고해서 정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규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을 좀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상시업무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부의 확실한 입장을 좀 가져오시기 바라구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유은혜 위원** 계속해서 경북대 관련된 건데, 2014년 파업 때문에 노조 간부 12명을 병원 측에서 고소를 해서 검찰에서 사무장한테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고 간부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알고 계시나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보고 들었습니다.

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병원 측이 이 상황에 대해서 사무장은 해고를 통보했고 나머지 간부들은 1개월에서 3개월 감봉 징계를 했는데요. 공공기관 인사규정이나 경북대 인사규정을 보면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2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동 면직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유은혜 위원** 그래서 병원 측의 이러한 징계는 매우 일방적인 처분이라고 보고요. 백번 양보해서 병원의 이런 징계가 정당하다고 쳐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조병채 원장이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보고 들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동일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노동자 기소유예 처분은 징계하고 임원의 기소유예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병원장은 기관장인 동시에 경북대 교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장의 복무는 경북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인데요. 경북대에 검토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검토 요청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그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알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경북대 임상실습동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본원의 900병상을 340병상으로 줄이고 응급진료 관련한 파트를 제외하고 많은 부분을 칠곡병원으로 이전하는 걸로 했다가 이게 340병상으로 축소하면 응급의료 기능을 하기에도 부족하다, 문제가 된다 이래서 다시 본원 병상 축소를 재검토하게 됐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유은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계속 임상실습동 건립 예산을 그대로 지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급하셨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임상실습동 건립은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저희가 15년 예산을 심의할 때 병원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는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예, 보고 들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저 1분만 ……

○**위원장대리 이장우** 1분만 더 주세요.

○**유은혜 위원** 그런데 지금 본원 병상 축소를 재검토하는 걸로 병원 운영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병원 구성원들과 협의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충실히 지켰습니까? 병원 구성원들과 협의를 전혀 안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아니, 그 부분은 설명회를 병원 측에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요.

○**유은혜 위원** 설명이 아니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성원과 협의할 것이 저희 부대의견입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협의 자체를 노조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걸 반대했다는 것이고요.

○**유은혜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교육부 입장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교협 회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등록금 납부가 카드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카드납부 대학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이용률은 3.4%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항진** 예.

○**유은혜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항진** 학생들 카드납부로 인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큼니다마는 학생들은 아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나 또 나중에 부채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어서 그렇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은혜 위원** 그런데 등록금 납부 부담이 아무래도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되니까요.

카드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해 냈는데요. 대교협에서도 수수료 문제라든지 참여 카드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등록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되도록 대교협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항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결과약을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야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특히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국회에 있었지요, 19대 국회 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오영훈 위원** 몇 차례 회의 과정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한민족 역사지도를 만들 것인지 동북아 역사지도를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외교적인 문제이든 그리고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 수준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해 왔거든요, 국회에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답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2015년 9월 이전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사장이 아니……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런데 그 이후에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 제가 참석한 바가 있고요. 그때 동북아 역사지도보다는 한민족 역사지도를 그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발언을 강창일 의원께서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8년간 지속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영훈 위원** 아니지요, 이미 2015년 3월부터

지적이 됐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2015년 9월 이전의 지적사항은 제가 조금 기억이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없습니까, 관계자 중에? 재단에서 나오신 분, 실무자 안 계신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계시는데, 한 사람은 저보다 늦게 들어왔고요. 한 사람은 그 담당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을, 이미 국회에서 다 제기됐고 지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아니,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언제 하셨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5월 19일 날 하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오영훈 위원** 2015년에 사업 파기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교육부 특별감사 있었지요, 이것 다 끝난 다음에.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뒤늦게 ‘역사지도집 편찬 어떻게 하나’ 하는 명의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목적은 뭐니까? 배경도 설명해 주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실은 역사지도 사업을 시작할 때, 말하자면 2008년 1월에 그 사업을 담당했던 사업단, 말하자면 역사학 교수님들이 그러한 국제학술회를 열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왜 다 끝난, 사업 파기가 결정된 다음에 하느냐고?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해야지 국제적 수준의 역사지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오영훈 위원** 그러면 2008년에 했어야지 왜 그걸 사업 파기가 다 결정된 다음에 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었습니다. 사업단의 교수님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영훈 위원** 이미 사업파기 결정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조사 끝나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다 끝낸 다음에, 이미 또 이의신청 들어온 것 알고 있었고 재심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뻔히 다 알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한 이유가 뭐냐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래도 늦게나마 하는 것이 국제적 수준의 역사지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오영훈 위원** 그래서 그 학술대회 개최해서 어떤 좋은 방향을 얻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아주 많이 얻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주 많이 얻었다면 어떤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말하자면 디지털 아틀라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수준이 전자적으로 구현이 되는데 사업단위 수행했던, 그래서 연구결과물로 납품된 사항은 그것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신분상 조치 16명 하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신분상 조치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써서 추가 안 하겠습니다.

직급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16명의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8년 2월 달부터 최초 계약이 시작됐지요, 공모사업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사지도 편찬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들이 있을 겁니다. 최초계약서 2008년 2월 달부터, 그다음에 연세대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실, 그다음에 또 다른 대학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서강대학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강대학교, 그래서 그 연구용역 계약서, 과업지시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오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호섭 이사장님,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 상세하게 해서 오영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교육학술정보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이요. 이게 처음에 도입될 때는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나이스냐 네이스냐 그래 가지고 서로 상당히 싸움이 좀 심각했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조승래 위원** 그때 걱정했던 우려들은 불식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그때 가장 크게 걱정했었던 것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집적해 났을 때 나중에 그게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그 정보를 의도가 좋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지금 이제 나이스시스템에 보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온라인 채용, 그다음에 홈에듀가 교육재정 시스템이지요? 홈에듀, 학원 민원, 검정고시 등 포함해서 6개 서비스로 돼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실은 이런저런 백업할 수 있는 서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해야 될 것인데 그건 국민들이 불안함이 없이 잘 구동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에 차세대 나이스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완벽하게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MS IE로만 구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구글 크롬이라든지 사파리라든지 사실 이것으로는 아마 구동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 MS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기 위해서 액티브X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구동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2009년 8월에 행안부고시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민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S OS를 사용하면서 모바일에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모바일에서는 전혀 구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OS는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아이폰이지요. 그렇게 OS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MS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KERIS 실무자들 오셨을 때 한번 띄워 봤지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교육학술정보원이 정말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ISP 계획들을 잘 수립 하셔서 이것 좀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KERIS에서도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특히 나이스에서 주요한 기능들을 뽑아서 대국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확대하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대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 해서 광고를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아까 그 자료에 보면 7조 1000억 중에서 국가장학금 등으로 3조 9000억을 마련했고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와 교내외 장학금 확충 등으로 3조 2000억을 마련해서 등록금 14조 원가량에서 한 7조 원을 해결했으니 반값등록금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맞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총량적 접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대교협 회장님께 한번 여쭙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3조 2000억은 대학에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사실과 맞는 말씀인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등록금 규모가

아마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등록금 규모는 전체가 14조 원이고요. 14조 원 중에 장학금으로 국가가 3조 9000억 그리고 대학이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3조 2000억을 해서 합계 7억 1000만 원이니까 반값등록금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그건 대외 장학금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승래 위원** 잠깐 조금만……

○**위원장대리 이장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는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고정가격, 불변가격으로 해 놓고서 등록금이 이렇게 이렇게 인상이 됐어야 되는데 인상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차액은 얼마가,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3조 2000억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더군다나 지금 대학이 가뜩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금 인상을 못 하게 하고 있고 학생 수는 줄고 있고, 그런데 정부는 반값등록금이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대학을 이렇게 쥐어짜서 반값등록금에 수치를 맞춰 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장학금 제정은 많이 늘었지만 개별 대학 쪽으로 보면 재정적 압박을 상당히 받아서 모든 대학이 지금 상당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장우** 조승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용인율의 김민기입니다.

교육부 박성민 부단장님 계시지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박성민입니다.

○**김민기 위원** 동북아지도 편찬을 했던 분들을 만나 본 적이 있어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만난 적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만났더니 교육부에서 이렇게 감

사, 지금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나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고요, 또 일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기 위원** 어떤 부분을 인정해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일단은 연구비 같은 것 규정에 맞지 않게 오버로 받았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그리고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잘했고 또 지도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김민기 위원** 지금 바로 그거예요. 한번 봅시다.

40억이라는 예산을 8년간 지속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8년 뒤에 거의 이견 빵점짜리가 된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성립하려면 그 연구를 하던 분들은 아주 치밀하게 기획을 하고 치밀하게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자 들은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공모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지금의 가정, 지금의 이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팩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부적절하게 연구비가 쓰여진 것 몇 가지는 인정하지만, 회계적으로, 연구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소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다’라는 거지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좀 이상하지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기 위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참고적으로 아까는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민기 위원** 아니, 아까 그런 것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뭐가 이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

겠습니까?

○김민기 위원 한번 해 보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역사지도가 만 들어지려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만하세요.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 설명하지 마세요. 뭐 다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장님, 15년 9월 이전의 것은 모른 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맞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여러 사항에 대 해서 경우에 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제가 또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제가 아 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이사장 자리에 오셨지요? 재산을 상속받으면 부채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유리한 것만 상속받습니까? 지금 이 령게 중차대한 일이 동북아재단에서 일어났는데 과거 건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공부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사돈 남 말하듯 이 계속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최병만 운영처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동북아역사재단기획운영처장 최병만 예.

○김민기 위원 임상선 관리처장님 나오셨어요?

○동북아역사재단연구관리처장 임상선 예.

○김민기 위원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이사장님, 뒤에 오신 분들이라 모른다고 아까 계속 그러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모르기도 하고요.

○김민기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이사장님,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이 일보다 큰일이 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하지 말라고 그러시니 참 제가 답답합니다.

○김민기 위원 이 일보다 큰 게 있어요? 그런데 9월 이전은 모른다 이런 표현들, 글썄, 저도 이상 합니다. 이런 표현들 이것 답변이라고 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질문하시는 요 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설 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설명하지 마라, 다 안다 이 러시니까 제가 참 답변하기가 좀 머시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기 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묻는 답 변에 항상 다른 답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다른 생각하고 계셨나 요? 왜 다시 또 되묻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여러 과정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이 역사지도사업에 대 해서는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김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김민기 위원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대리 이장우 도종환 간사님.

○도종환 위원 지금 이 역사지도와 관련된 의문 들이 위원님들로부터 끝없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 계속 해명이 잘 안 되면 국정감사에서 전부 다 관계자들 증인출석을 해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관한 청문 회가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 은데, 전 단계로 일단 그러면 교육부가 다시 한 번 감사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 이 방안을 국정 감사 전 단계로 먼저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또 의문을 갖고 계시고, 또 이왕이면 충분히 더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박성민 부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오 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전부 정리해서 장차 관님께 보고드릴 다음에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어쨌든 국민들 혈세가 45 억 원이 들어가고 8년 동안 한 것인데 이런 결과 물은 사실 참담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도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가 책임이 큼니다. 그래 서 교육부가 철저하게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을 하고 또 충분하게……

우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이지 만 오시기 전의 일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국회 에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김민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위원장대리 이장우** 예.

○**김민기 위원** 위원장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서답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답변하는 태도, 경청 이 자세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우리 김호섭 이사장님, 앞으로 국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성실하고 아주 진솔하게, 또 위원님 말씀에 아주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광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도 위원** 대구 중구남구 광상도 위원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께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니까 ‘초중등 ICT 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한다’라는 제목 아래 ‘최신 IT기술 체험·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광상도 위원** 이 프로그램의 작년도 추진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제출을 받아 봤더니 공교롭게도 학술정보원 인근에 소재한 학교들만 대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7회 144명 참여했는데 전부 정보원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숫자는 맞습니다.

○**광상도 위원** 인근에 있는 학교들만 모집해서 한 것도 맞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제가 그 인근 여부는, 지리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정보원이 대구 동구에 있는 것은 맞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동구 혁신 도시에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만 대상으

로 거의 이것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각 학교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미래교실이라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근의, 특히 대구·경북 인근의 중학생들이 와 가지고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해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숫자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숫자가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는데 훨씬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우선 좀 소외되고 이런 지역의 학교들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하여튼 원칙을 좀 세우셔서 다양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물어 보시던데 지난해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호텔 하나 인수한 것이 있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인수해서 성과가 좀 있는지 한번 여쭙어 볼까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그것이 미국의 유명한 회사랑 같이 지분으로 들어갔는데 수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지금 호텔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그것은 아니고요, 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분이 들어갔는데 그 지분에 대한 수익률은 괜찮은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받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뭐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해외에 투자한 부동산 관련된 투자가 총 얼마 정도 되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조치하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장우** 시간을 많이 아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 계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노웅래 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직원공제회가 2500억 투자했던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아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이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것도 알고 계시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인허가 특혜 시비 이런 의혹 속에서 6억 원 수뢰해 가지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도 아시지요? 그런 사업이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고요. 2008년도에 파이시티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회수한 그런 경우는 보고받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다 회수 못 했고 지금 손실액이 소송 중인 203억이 있는 하지만 이것까지 포함하면 246억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대 246억 손실을 입을 텐데 여기다가 투자한 것, 회수 못 한 1200억이 8년 동안 묶여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제 손실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인허가 특혜 시비 생겨서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이것 굳이 투자했던 이유가 뭐니까? 정치적 이유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상세한 이야기……

○**노웅래 위원** 정상적으로라면 이거 투자할 수 없잖아요. 특혜 시비 있고 돈이 오가고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투자 안 할 텐데 그런데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결국은 잘못된 투자였습니다.

○**노웅래 위원** 잘못된 투자였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노웅래 위원** 잘못된 투자였지요, 결국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로 봐야 될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손해 보고 있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노웅래 위원** 앞으로는 공제회가 하여튼 투자 원칙, 리스크 이거 충분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기획처장입니다.

○**노웅래 위원** 어디 가셨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오늘 저희 연구원의 행사, 오픈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시느라고 허가를 얻고 지금 연구원에 계십니다.

○**노웅래 위원** 그것이 국회에 보고하는 것보다

도 중요한 것인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외부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노웅래 위원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저희 연구원의 개원기념일입니다.

○노웅래 위원 개원기념일이예요? 개원기념일이 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오늘 국회에 보고하는 날인데 전화도 아무도 안 받고 오늘 다 쉬지요? 비상근무자만 남아 있던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국회 보고하면 내일 쉬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뭐 내일 쉬어도 되고 오늘 쉬어도 될 수는 있겠지요, 뭐 오늘 쉬는 날이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뜻이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반성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국회에 보고한다면…… 전화도 안 받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대학원이지요? 여기 교수님들이 일반대학보다는 많네요. 그렇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지금 현재 54명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장우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277명 아닙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아니, 학생 수입니다.

○노웅래 위원 학생 수……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노웅래 위원 학생 수에 비하면 교수가 많은 편 아니예요? 서울대학에 비하면 서울대학은 1인당 15.7명인데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그렇지요? 여기는 몇 명에 하나입니까? 엄청 많은 편이지요.

그런데 그 교원 비율이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것에 비해서는 한쪽으로 몰리고 쏠렸더라고요. 지금 5.4명이네요, 한 학생 수당. 서울대는 15.7명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네. 그런데 윤리학 전공 같은 경우는 학생 하나에 교수

1명이던데요. 그렇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다 수료를 하고 논문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노웅래 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적지요. 한국사학도 마찬가지로, 28명에 8명, 국어학은 1명에 7명, 편차가 너무 심하지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교수를 뽑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노웅래 위원 이번에 뽑았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채용했습니다. 5명 채용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뽑았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국문과 또 1명 뽑았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국어학 전공자가 옮겨 가 가지고 1명을 뽑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국어학 전공자가 많지 않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2명입니다. 2명인데 1명이 옮겨 가 가지고 1명 더 뽑게 되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교수가 너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가 너무 한 쪽으로 편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몰리고 쏠렸던 이런 부분이 이거 문제없는 것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문제가 있지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시정되어야 되겠네요?

○한국학중앙연구원기획처장 박동준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끝났어요?

○노웅래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는 과도한 학비를 줄여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공적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부터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

시켜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수혜인원도 금년 기준으로 160만 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혜 인원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의하시는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적극 동의합니다.

○**김석기 위원** 매년 자체적으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전화 친절도조사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최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최근 결과가 작년 대비 10.2%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원인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소득 연계를 하다가 좀 더 엄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도변화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 또 콜센터가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하락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부단히 마련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장학재단 자체에서 고객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은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와 있고 우리 기재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서 기재부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자체조사한 것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2015년도 고객만족도조사를 기재부에서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1개 기관과 함께 국민생활증진 분야에 편성이 되어서 C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김석기 위원** C등급은 대단히 미흡하다는 수준인데 21개의 기관 중에서 꼴찌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은 2014년도에 ‘양호’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두 단계나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업무별 평가내용을 보면 학자

금 대출·대여, 장학사업 등 장학재단의 모든 업무 분야의 만족도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창립된 지 7년 된 기관으로서 상당히 급격한 양적팽창을 하여서 질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내적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사장으로서 위원님께 다음 저희 국정감사 시기 정도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쇄신계획을 세우고 실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장학재단 내에 고객만족위원회를 두고 CS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서비스 친절도 조사를 하면 성적이 아주 좋게 나오는데 외부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만족도가 아주 낮다, 그것은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체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고객 서비스 교육을 더욱더 직원들에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충분히 편성을 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김석기 위원** 상대는 학생들이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부임 한 달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새로운 장학재단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울의 김병욱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2015년 10월 여가부 주최 관련기관 협의회에서 참석기관 사이에 위안부 기록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2004년 7월이라고 말씀……

○**김병욱 위원** 2015년 10월입니다. 문화재청이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사무총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유네스코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위안부 기록 등 한국에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유네스코에 등록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원하고 서포트 하는 것이잖아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저희가 주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가장 중요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기록에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유네스코위원회 사무총장님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저희가 주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여가부 주최 관련기관 협의회’라고 했는데 관련기관에 유네스코위원회가 빠진다는 얘기에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실무 차원에서 늘상 많이 보이는데요. 주로 기술적인 사항들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사무총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안부 기록에 대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무총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는 정치고 일할 때는 일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민간 주

도로 하자고 결정을 했다는 그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얘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시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아마 다른 직원이 참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총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유네스코위원회의 입장을 얘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얘기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 주도로 이렇게 한 것은 2015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이미 국제연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전에도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저희도 민간의 활동을 계속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사무총장님께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 있게 업무를 챙겨 주십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그 실무 차원만 모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총장님은. 그 업무에 좀 충실하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 예.

○**김병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여쭙어 볼게요.

이사장님 지금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한 해 대출하고 장학금 신청이 몇 건이지요, 1년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120만 건이었고요, 평균 140만 건 정도 되었습니다.

○**김병욱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350만 건 됩니다. 350만 건이요, 건수로, 사람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위원님,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병욱 위원** 예, 합치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거는 기대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야만 대학을 다니고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광상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이들한테 장학금 관련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폭주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특히 장학금 신청할 때, 연말과 2월이지요, 1차 2차 신청할 때 보면 거의 접속이 안된다는 민원이 자유게시판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알고 계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김병욱 위원 무려 7시간 기다리고 대기자 수가 13만 명,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돼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4년, 15년 매년 1만 건 정도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재단의 가장 큰 목적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주는 것인데 신청할 때부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불안정하면 얼마나 학생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장학금 신청하는 것도 가슴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청할 때 이렇게 몇 시간씩 기다리고……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김병욱 위원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이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주는 갑의 위치가 아니라 정말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위원님,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정신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임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마는 제 인생을 걸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한국장학재단이 우리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정된 사항, 지금 변화된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 하반기에 등록할 때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실행한 것은 국정감사 시기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영화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K-MOOC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박경미 위원 굉장히 좋다고 자평을 하시는데요, 한국판 MOOC 혹은 칸 아카데미를 표방하고 있는 K-MOOC가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유명교수의 명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K-MOOC의 핵심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보니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KOCW 사업인데요, 여기는 인터넷을 통한 무료 강의 공개 및 공동 활용으로 고등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K-MOOC와 KOCW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현재 탑재되어 있는 K-MOOC와 KOCW 콘텐츠의 개수는 크게 다른데요, 구성방식이나 콘텐츠는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K-MOOC는 그 개수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운데 현재 저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15개인데 초기에는 27개로 하였고 아마 1학기에는 제한적으로 걸어 놓으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서 분야별로 되어 있는 콘텐츠 개수를 또 합산을 해 보면 18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현재 K-MOOC에 공개된 강좌 15개 중에서 KOCW와 똑같은 강의, 교수명과 과목명까지 동일한 강의가 8개지요. 15개 중에 절반이 넘는 것인데 이것이 KOCW 변환개발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9개가 변환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인데요, 기영화 원장님 어떤 변환을 하신 것인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일단 KOCW하고 K-MOOC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가치와 패러다임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K-MOOC를 실시하면서 KOCW를, 그간에 해 오던 강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KOCW에 올라가 있는 강좌들을 일부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거쳐서……

○박경미 위원 그래서 갖고 오셨는데.

가치와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0~60분짜리 강의를 15분 단위로 쪼개고 그 사이에 과제나 퀴즈를 삽입한 정도, 그래서 살짝 가공하는 정도라고 보이는데 강좌당 동영상 제작비가, 그렇게 변환하는 제작이 2500만 원이고 매년 운영비 조로 1200만 원 그래서 강좌별로 37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가공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 할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살짝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올해 K-MOOC 예산이 40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 콘텐츠 개발비가 30억 9800만 원이고요.

KOCW, 그러니까 이것은 대학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무료로 개방한 강의인데요 그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사이트에서 즉 K-MOOC에서 또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KOCW에 무료로 개방된 콘텐츠들은 ACE와 같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많은데, 결국 교육부 예산 중복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KOCW에는 제 강좌도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수 하던 시절 수업에 하던 장면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KOCW에 올라가 있

는 강좌들은 각각의 수업에서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한 대학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찍어서 올려 놓고 모아 놓은 것이고요.

○박경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케리스에서 했던 KOCW를 확대, 확장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지요.

이번에는 케리스 한석수 원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사업이 취지도 비슷하고 구현 방식도 비슷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데, 굳이 두 기관이 따로 나뉘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K-MOOC하고 KOCW가 별도 사업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 또 무료로 이미 개방 중인 KOCW의 강의들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K-MOOC로 옮겨 온 이유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리고 교육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조실장님 가셨나요?

○교육부정책기획관 나향욱 정책기획관입니다.

○박경미 위원 잠깐 20초……

○위원장 유성엽 이따 추가질의 안 하실 거예요?

○박경미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박경미 위원 교육부에서도 그러면 2개에 중복성이 없는지 정리를 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정책기획관 나향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진흥원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맞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19조의 소관 업무 규정 보셨지요, 제가 아까 보시라고 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나경원 위원** 거기 보면 이러 이러 이러한 것 죽…… 19조4항9호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위탁받은 업무를 하게 돼 있으시고요. 그렇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업무만 하시는 거 아니지요? 법령에 따라서 위탁 받은 거 하셔야 되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우리 평생교육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나경원 위원** 그런데 2008년에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업무 보고를 칠십…… 제일 두껍게 내셨어요, 제일 충실하게. 그런데 76쪽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법률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33조에 들어 있었던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제작년에는 특수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였고요.

○**나경원 위원** 이제 그 정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다른 산하 기관도 한번 다시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법령에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도 제대로 안 챙겨 보고 그냥 교육부에서 하라는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11년부터 지금까지요 사실상 국가평생교육원은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신 거지요. 법 개정에 의해서 내년 5월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다시 탄생을 하는데요 올 가을이라도 서둘러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지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원이 하는 업무인지 무엇이 우리 기관이 하는 업무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원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도 다 찾아보시고요. 다른 법령에 우리 기관의 무슨 업무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제대로 업무 보고해 주시고 업무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를 두 번째 사안으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육협의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이 사실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분의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교육시스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재직자특별전형,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직자특별전형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재학 시에 배운 전공과 동일 계열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야간 및 주말 수업이 개설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재직자들이 다닐 수 있는데 야간교육과정 개설한 학교 비율이 2017학년도 기준 해서 78개 대학 중에서 3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직자특별전형은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재직자특별전형 확대 그리고 조금 더 내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허향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시면 아까 순서에 뒤늦게 오셔 가지고 아

직 질의를 못 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요. 전 회경 위원님과 강길부 위원님 계시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회경 위원 먼저……

○위원장 유성엽 먼저 하시라고 그럴까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직업교육도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에서도 전문대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하고 국가고등교육의 체제도 4년제나 2년제나 아니라 연구 중심 대학과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재편돼야 할 단계라고 하면서……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여기 참고자료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요청한 겁니까, 됩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지금 저희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를 해 가지고 이번 가을 하반기에 정책 제안을 정부하고 국회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또 이것……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그것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숙원사업으로 수업연한 다양화……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2~3년제인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학과 특성에 따라서 1~4년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겠다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있는 분 있어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대학정책관 서유미입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 전문대학 현재 2~3년인데 1~4년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돼야 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2년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업교육이 전문이 아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확 바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이 문제는 전체 고등교육체계 내에서 고등교육 인력 양성이라든가

대학 종류별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대교협 등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길부 위원 저는 반드시 이리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그건데 실제 업체에 있던 사람은 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런 체제로 옮겨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도 기존의 대학이나 또는 전문대 체제로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시에서 유행하는 맞춤형 교육에서도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민간 직업교육 전문기관들이 12~24주를 가르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데이터 분석가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취업률은 98%, 초봉은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1억 원 내외라고 하거든요.

이것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회장님 맞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알고 있잖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강길부 위원 현재 우리 전문대학의 수준은 이게 아니잖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지금 저희 시스템이 전문대학교가 일반대학의 하위 개념인 단선제 구도입니다. 저희 교육이……

○강길부 위원 그렇지요? 그리 되어 있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학문과 연구의 일반대학이 있고 직업교육대학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전문대학교는 사실 학사학위를 줄 필요가 없고 산업학사라 해 가지고 산업에 있는 학사 그렇게 해서 직업교육 트랙이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이제는 교육기관들이 철저히 기업이 원하는 수준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저희들 적극 동참합니다.

○강길부 위원 지금 그리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맞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틀에 갇혀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뉴욕의 직업학교처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커리큘럼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동감합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업연한 다양화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 지지하시고 이렇게 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이시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그것을 저희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종합적으로 검토……

○강길부 위원 또 논의한다 해 놓고 직업교육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검토하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다 됐네. 다시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강길부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다음에는 우리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3일째 업무보고와 질의를

해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느끼는 생각인데 정말 좋은 뜻으로 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법 만들고 기관 만들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법 만들고 기관 만들고 이렇게 되면 계속 앞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부각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정부 또 정부 산하기관 이런 데가 늘어나는 게 좋겠는가,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이걸 내실화해 가지고 어디서 담당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담당을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장님께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튜브에 철학, 인문학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해도 민간에서 하는 유수의 강좌들이며 또 세계 대학의 강의들이며 또 유명 교수나 저자의 강의들이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정보가 많아서 다 못 볼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배움 또 K-MOOC 이런 사이트들을 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공공의 바다에, 정보의 바다에 있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분류체계라든지 내용, 정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은 퀄리티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늘배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오픈해 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있는 것들을 한군데에 통합해서 장터 위에 전부 모아 놓음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해서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다라는, 기존의 시·도, 지자체 등에서 개발해 놓은 평생교육시설들에서 올려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스템 유지만 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MOOC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쪽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과정을 이수하면 저희가 자격 이수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학점으로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으로 국제사회에서 에덱스(edX)나 코세라(Cousera)가 이미 2011년부터 시작했던 것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미 출발점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모아 놓거나 혹은 있는 것을 쉽게 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대학 수준의 교육, 최고

의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희경 위원 그런데 원장님, 원래 MOOC 사업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떠오른 이유는 사실은 이 좋은 강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 도달됨으로써 물리적 개념의 대학, 그러니까 물적·양적 투입을 해야 되는 대학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단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대학이 있다, 거기에 강의동은 몇 개다, 이런 식의 물적 개념의 대학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MOOC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K-MOOC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대학에 K-MOOC를 위한 강좌를 협약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학에 별도의 사업 분야를 정부가 지원해서 키워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교수·학습센터를 통한,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사이버 강좌를 개발할 당시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했던 것은 그렇게 갔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연세대가 이미 K-MOOC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코세라(Coursera)나 유다시티(Udacity)와 퓨처런(FutureLearn), 에덱스(edX)와 계약을 맺어서 강좌를 한 강좌에 2억 가까이 들여서 개발을 했고……

○전희경 위원 그 자세한 부분은 원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 의원실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다음에 K-MOOC 사업이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든 과감하게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집약적으로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면에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집중과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염동열 위원 허향진 대교협 회장님, 그냥 계시고요. 같이 함께 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이승우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협의회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종속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단선적 구조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문대학이 가질 수 있는, 특히 기술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야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시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그래서 일반대학도 학문과 연구에다가 직업교육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산업계 관점 평가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교 평가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분야를 협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협의회가 대학과 기업체, 산업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술이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기술 또 학교의 교육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급변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분야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0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기업이 한 400개 정도가 줄었지요, 물론 대학은 조금 성장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점차 주춤거리거나 도태되고 있다 이런 증거거든요.

여기에 하나의 증거로 보면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허수영 롯데케미칼, 석유화학협회 회장이지요. 이분이 편지를 쓴 게 있어요. “모든 교수가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집중해 있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단위조작, 열역학, 장치설계 등의 과목을 학부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과목을 가르칠 교수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기초과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인력들이 상당 부분 괴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맞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기업들이 무너지잖아요. 코닥, 후지, 그다음에 노키아 같은 게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그냥 사라지고 새로운 카카오톡처럼 1인 기업이 대기업이 되어 버리고,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보다 독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대학에 종속이 돼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작게 가져가는 것 보다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더 확대해서 전문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기술인력들을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끔 배출해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이고요. 그래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유니버시티(university)가 있고요. 칼리지(college)하고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6개월짜리도 있고 또 4년짜리도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4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이승우 회장님은 이러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펼쳐 보고 싶은데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교육부가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주장을 하고, 대기업이랑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요.

교육부 누구 나오셨지요? 누가 말씀하실래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회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 같이 참여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가을에 자료를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대학정책관 서유미** 같이 논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질의해서가 아니고. 이승우 회장님께

서 주관하셔서 교육부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대교협 같이……

○**염동열 위원** 같이 해도 좋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저희가 산업연한 다양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교육 전반적인 체제에 대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하는 복선제도를 주장하는 세미나를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하시자고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오늘 교육부에서도 몇 분들이 나오셨는데 직접 해당되는 과의 국장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하고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켜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대답을 실체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챙겨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 분 간사 위원님 중에서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마지막 보충질의입니다.

○**도종환 위원** 김호섭 이사장님, 2013년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립외교원 50주년 기념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동서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점령과 지배, 학살과 전쟁이 있었던 국가끼리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는 발상, 화해와 공존, 상생과 똘레랑스, 이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는 이런 발상을 대통령이 제안하신 거예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면 동북아역사재단 소관이라고 보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있습니다. 한·중·일 역사 공동 부교재, 교과서까지 가려고 그러면 역시 역사관과 역사인식들에 여러 가지 장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단계에서 교과서가 아니라 부교재 차원에서 우리 재단의 주도로 부교재를 만든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일, 이런 사업은 없는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교과서는 교육당국들의 아직은…… 일본도 그렇고요.

○**도종환 위원** 박성민 부단장님, 교육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도종환 위원**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하신 것이 굉장하……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국정과제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래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진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일본은 극우화되고 있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우익들의 역사 왜곡이 심하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든가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부단장님?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한·중·일 3국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역사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과거에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많이 진척된 게 사실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있으면 거기에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과의 연결고리,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축적된 학문도 있고, 그러면 추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그래서 동북아재단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그걸 연구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김호섭 이사장님, 작년 10월 12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날 보도자료를 보면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자문 및 수정·보완을 요구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보도자료 보면. 그리고 구성원에 보면 김호섭 이사장님, 이배용 원장님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구성원, 저기 보면 ‘역사 연구 3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호섭 이사장님은 이 편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죄송하오나 그 업무가 국사편찬위원회 업무입니다.

○**도종환 위원** 물론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드는데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저기 교육부 보도자료에 보면 역사 3기관장, 국사편찬위원장 말고 동북아재단 김호섭 이사장님, 그다음에 이배용 원장님이 다 포함된단 말이예요.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냐고 묻는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위원님, 죄송하오나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정배 위원장님께 좀 여쭙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저기 구성원에 이사장님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참석하신 적 있냐고요? 위원은 위원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물론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지만 국사편찬위원회 말고 편찬심의위원으로 교육부에서 낸 보도자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참석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위원님, 죄송하오나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과서의 주무 위원이고요.

○**도종환 위원** 똑같은 답 반복하지 말고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역사교과서……

○**도종환 위원** 위원이에요, 아니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국사편찬위원회

에서 하는 업무 중에……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면 박성민 부단장님!

교육부에서 낸 이 보도자료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 보도자료, 10월 12일 날 낸 보도자료 이것.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위원님, 편찬심의위원의 공개 문제 이것은 엇그제 길게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종환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낸 보도자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깐…… 당연직 위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 교육부 보도자료예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편찬심의위원 공개 문제는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거짓말이에요? 보도자료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교육부 보도자료잖아요, 이것.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을 왜 대답을 안 해요? 이 보도자료가 그러면 거짓입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적으로 구성원에 ‘역사연구 3기관장’ 딱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뭘 그것을 대답을 안 해요? 두 분 다 대답 안 해요? 이것 보도자료가 그러면 사실 아니에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보도자료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서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투명하게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서 왜 대답을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이나 아니냐 묻는데도 대답 안 하고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도 대답할 수 없다 그러고 이게 무슨 투명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개방적인 거예요?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뭐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위원님, 한 서너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했으니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종환 위원 뭘 서너 달을 기다려요, 뭐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명단이라든가 그 외에 이 국정교과서……

○도종환 위원 아니,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 있는데 뭘 서너 달을 기다려요! 그것도 대답 못 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죄송하오나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사업이어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감춰야 할 상황이에요, 이렇게 사소한 것이?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내놓고도? 참 답답한 분들이네.

○위원장 유성엽 마무리해 주시지요.

어떻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에서 집필진도 공개를 하겠다 또 집필 기준도 공개를 해서 좋은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해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비공개, 껌껌이로 방침을 전환해버렸단 말이에요, 몇 가지 이유를 들이대 가지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어떻게든 오늘 저 회의에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는 것은 또 그 자체로도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오늘 나와 있는 부단장도 마찬가지이고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도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못 해 준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오히려 자꾸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리고 숨기고 가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몇하다면 왜 이런 부분을 확인조차도 못 해 주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이렇게 피해가시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어떤 정당성을 유지해 가는데도 대단히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입장을 밝히시지요.

어떻게,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한 것이 아주 사실 관계만을 확인하는 건데……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위원장님 지적이 상당히 뼈아프시다마는 또 저희가 교육부의

산하기관이라 교육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도 있는 것을 제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위원님들 표정이 있어서 질의를 보충해서 드렸던 것이고요.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추가질의 때도 질의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말이지요.

여기까지 해서 보충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발언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이 지금 답변을 거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제 입장을 제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과 애원의 말씀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교육부 산하기관의 단체장으로서 좀 제발 봐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한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이장우 위원** 소신 있게 얘기하세요, 소신 있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민석 위원** 제가 다시 여쭙게요.

도종환 위원님이 회의 참석 여부를 물었는데 입장 때문에 답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역사교과서 문제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무기관이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사항을……

○**안민석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의 태도는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동문서답하시고 또 어떤 때는 묘한 웃음을 지으시고 굉장히 아주 불성실한 자세예요.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이사장님의 이 이미지는 여야 위원 모두에게 이사장님 개인의 평가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북아역사재단 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어

요. 아시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잘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자, 다시 여쭙게요. 제가 여쭙게요.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다시 말씀드리면……

○**안민석 위원** ‘참석했다’ ‘안 했다’ ‘답변할 수 없다’ 1·2·3번 중에서 어떤 겁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이 교육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안민석 위원** 그래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것 아닙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

○**안민석 위원** 대답을 왜 못 하세요? 본 위원의 이런 이야기에 지금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위원님 질문은 너무나 명확한 질문입니다마는……

○**안민석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것 아닙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20대 우리 교문위가 저런 기관장을 용인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어떻게, 질의 마치십니까?

○**안민석 위원** 다른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을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넘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유성엽**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는 측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 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지는 건데 자꾸 이렇게 여기

의 참석 여부 사실관계마저 확인, 뭐 입장을 여쭙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안 하시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인정하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런 일이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떳떳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자체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잘못 가고 있는 일이다, 나쁜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부 일원으로서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장우 간사님께서도 화를 내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사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 저에게 뼈아프게 느껴지고 그렇니다마는, 또 이 순간이 저로서도 매우 고통스럽니다마는 저희 기관이 교육부 산하기관이고 그 교육부의 방침에 제가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제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추가질의들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하면서 또 이사장님도 좀 생각을 정리하시고 아까 교육부에서 나온 부단장도 생각을 좀 더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생각들을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다면 의사진행발언을 30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그러십시오.

○**안민석 위원** 역사 국정교과서가 옳다 그르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고요. 회의에 참석했다 안 했다는 사실, 팩트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도종환 위원님께서 팩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답변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여든 야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산하기관에서, 장관께서 불리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면 계속 넘어가야 됩니까? 20대 처음 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

코 좌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 20대 교문위는 제 기능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위원장께서 내지는 여야 간사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간사들 간에 모여서……

○**이장우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위원장 유성엽** 예, 하세요.

○**이장우 위원** 어쨌든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데 이 문제를 교육부나 이런 데서 하는데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답을 안 하면…… 표현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사교과서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비취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을 산하기관, 소속기관장이 정부의 방침에 피치 못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도종환 위원** 답변 안 하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어떻게, 두 분 간사님 간에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상의를 하셔야지……

○**이장우 위원** 회의는 하시고 상의를 하시지요, 회의는 하는 대로 하고.

○**위원장 유성엽** 방금 이장우 간사님께서 ‘나쁜 일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위원장이 끝까지 좀 인내를 하면서 사회를 봐야 되는데 나쁜 일이라고 단정한 것은 그렇게 썩 저도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여야 위원들이 다 보시고 뒤에 보좌진들도 있고 언론인들도 계시고 또 답변석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가 봐도 아마 제가 좀 나쁜 일이라고 단정해도 유성엽이가 너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저도 좀 인내하

지 않고 그렇게 제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하고 두 분 간사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저런 답변을 끝내 답변석에서 거부할 했을 때 회의를 더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정회를 하게 되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시지요.

○**위원장 유성엽** 예, 발언을 하세요.

○**염동열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성엽** 발언하세요. 먼저 우리……

○**염동열 위원** 저 먼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 먼저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성엽** 아니요, 우리 도종환 간사님 먼저 발언하시고……

○**염동열 위원** 예,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유성엽** 예.

○**도종환 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다음에는 우리 염동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19대에 우리 교문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20대도 좀 그렇게 순탄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3일째 상임위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참 우리가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이미 이것은 어느 정도 정부 방침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임위 회의 전체가 지난번처럼 불량 또 불통의 상임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만약에 정회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또 상당히 뼈그덕거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하실 때에…… 저는 한 부분은 이해합니다. 산하기관으로서 산하기관장이 아마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후속으로 과연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어떤 말이 오갔는가라고 하는 후속적인 답변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사장도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정회를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좋은 출발이 상당 부분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서 지혜를 모아서 다시 한번 답변 요청을 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또 상위 기관장이 있으니까 그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켤레를 잘 꿰어서 우리 상임위가 좀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은혜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유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교육부 산하기관이어서 교육부의 입장, 방침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런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들을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이 역사교과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산하기관장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하기관장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오면 그러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방침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넘어가야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아예 묵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역사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역사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도종환 위원님도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계속 이렇게 듣고 봐도……

오늘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부가 그런 방침을 정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곽상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순서대로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전희경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지금 저는 여기에 조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업무보고나 또 동료·선배 위원님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상임위 3일째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교문위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오늘 3일차인데, 뭐 이틀에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3일차 맞이하면서 업무보고하시는 부처, 기관분들 다 고생하고 계시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보좌진들 다 열심히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람도 없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 가고 이러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국민들 보시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지금 기관장께서 답변하시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이 다른 위원님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셨을 수 있을지라도 핵심적인 문제는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정상화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비공개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이 비공개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께서는 답을 못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투어야 한다면 주무부처를 통해서 그 방침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참석 여부를 가지고 그 뒤에를 다투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어떤 정도 상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다음에는 우리 안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저는 염동열 위원님 하신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있지만은 이것이 정회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김호섭 이사장님께 답변할 기회를 한 번 드리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수습할 수 있도록

김호섭 이사장님의 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저는 정회가 아닌 오늘 이 회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달의 발단은 정부와 산하기관이 서로가 의기투합해서 국회의 권위를 지금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조선의원님들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지만 아마 하시면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국회라는 것이 권위를 상실하면, 피감기관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권위를 얻지 못하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정부와 산하기관이 함께 짜고서 위원의 답변을 거부를 하고 이러한 권한을 짓밟히는데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답변에 변화가 없으면 오늘은 정회가 아닌 더 이상 이 회의를 진행하지 말고 폐회를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이후에 정부든 산하기관이든 20대 교문위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야 위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지난번 교육부장관이 와서 업무 보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방침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양해해 달라고 이미 엇그저께 이 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장이 와서 같은 얘기를 하니깐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교육부장관, 그 위에 있는 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양해한 사항을 다시 또 이렇게 재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 점도, 회의의 성격도 깊이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거기에 양해를 해 줬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마 우리 곽상도 위원님 개인적인 판단이실 것이고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뜻으로 양해를 해 주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것은 양해를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추가질의가 지금 몇 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세 분 간사 분들 나가서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를 좀 협의를 하고 들어오십시오.

협의를 하고 들어오시고, 협의하고 들어오시고 나면 제가 그 뜻을 들어서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질지 이런 문제도 판단해서 할 수 있게 세 분 간사님, 여기서 같은 취지의 말씀들을 계속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장우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유성엽** 아니면 정회를 해 드릴까요, 편안하게 협의할 수 있게?

○**염동열 위원** 아니, 그냥 나가서 하세요.

○**김민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성엽** 아니, 같은 취지의 이야기 같은데요. 더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는 가서 가지고……

그러시지요. 우리 도 위원님 우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도종환 위원** 정회 요청 안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성엽** 우선은 대화를 좀 하시고, 지금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한 몇 분이 계시니까……

○**김민기 위원** 같은 취지가 아니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뭐 다른 내용이에요?

○**김민기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예.

○**김민기 위원** 법에 의해서도 아니고 영에 의해서도 아니고 한말씀에 의해서 ‘나는 얘기 못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것저것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냐의 여부조차도 방침에 의해서 아무 말도 못 하겠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개인으로 묻고 국회의원들이 개인으로 묻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내가 얘기하러 가기 바쁘니 네가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국민이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입을 꼭 닫으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뒤에 질의를 2분, 3분 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매듭을 짓고 추가질을 하든 말든 이것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위원** 정회하고 협상하시지요.

○**이장우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유성엽** 말씀하세요.

○**이장우 위원** 국민들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우리 회의를 정회하고 폐회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장관 오셔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역사교과서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서 공개될 때까지 집필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양해해 달라고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속기관장이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정회하고 국회의 회의를 파행하고 이것이야말로 저는 구태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간사 간에 상의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민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잠깐만요, 거의 하실 말씀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질의가 남으신 분이 우리 조승래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이렇게 해서 네 분이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간사 간에 나가서 가지고 좀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질의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또 관련 입장을 밝히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회를 하기보다는……

○**김민기 위원** 의사진행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회의를 하다가 정회를 하고 그러는 것은 회의 운영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구태는 아니지요. 이것은 회의의 형태이고 운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구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짧게라도 정회를 하셔서 간사님들께서 얼른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매끄럽게 다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구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했다’ ‘안 했다’ 한 말씀만 해 주면 될 것 같다가 이렇게 여야가 논쟁하는 것이……

○**이종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같은 취지 같은데 우리 이종배 위원님 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까지만 말씀을 듣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의사진행하기 시작하면 또 하루종일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이신데 이 사안이 정회로 갈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분 말씀 다 하셨는데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니까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다시 한번 좀 답변 기회를 주세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도종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나가서 간사간 논의하는 사이에 질문 다 끝나고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오늘 회의는 끝나 버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답변은 저라도 다시 한번 여쭙어 보는 것을 제가 보장을 할 테니까……

○**안민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도종환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추가질의를 마치는 순서로 제가 그것을 할 테니까……

○**안민석 위원** 아니, 지금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정회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은혜 위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눈빛을 보니까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위원장 유성엽**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다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이사장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보도자료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은 우리 재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그 범위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질타하시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마는 또 제 입장이 또 그러니까 좀 이해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보도자료를 만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고요, 그것은.

○**도종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 정회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정회를 하세요. 이게 뭐 국가기밀입니까? 국가기밀이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답변하시면 뭐 북한군이 쳐들어오기라도 합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에 교육부 쪽에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하라고 이런…… 교육부장관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교육부가 답변하지 말라 지침을……

○**도종환 위원** 방침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예요, 공개.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이 방침이에요. 어디 비공개가 방침입니까?

○**위원장 유성엽**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앞에 했던 것들과 반복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간사 세 분 나가서 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추가질의가 끝나갈 무렵에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간사님들이 이제 나가셔서 얼굴만 서로 멍뚱멍뚱 보실 것 같은데 뭘 협의를 해요?

○**유은혜 위원** 무슨 협의가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위원장 유성엽** 빨리 나가서 가지고 협의하시고……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3분입니다, 답변 포함해서.

○**안민석 위원** 저희들은 위원장님의 권위를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제가 사실 이것을 질의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의를 이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본질의 과정에서 이것을 분명히 그때 여쭙어 봤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제가 여쭙어 봤던 사실인데 참고로 엇그저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들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사편찬위원회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편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해서 사실은 이것에 기초해서 교육부는 공정성 투명성 균형성을 위해서 내외 전문가들을 포함하는데 역사 관련 기관장 3명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쭙어 봤더니 국사편찬위원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여쭙 보니까 두 분은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답변을 안 하신 것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편위원장님 참여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참석했는지 안했는지를 제가 모릅니다.

○**유은혜 위원** 본인이 참석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

○**조승래 위원** 자, 그러면 참여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참여한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겠지요. ‘참여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함구령을 내린

것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국사편찬위원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를 뿐더러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 분이 참석하셨는지 안 참석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유관기관 회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의 주체가 부단장님이 주최하시는 회의인가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유관기관장 회의는요 역사 3기관장님이 자율적으로 역사연구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간담회 같은 것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 작성을 안 하시나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그냥 간담회 같은 것입니다.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고요.

○**조승래 위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인가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저희는 잘 모릅니다. 자율적으로 하시는 회의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참고로 역사 유관기관 3기관이 회의를 하라 하는 것은 19대 때 교문위 위원님들의 뭐랄까 추천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역사 유관기관인데 협조를 안 하느냐 하는……

○**조승래 위원** 예, 그러니까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협업을 하는 것은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지요. 아까 제가 본질의 때 지적했던 것처럼 정치사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집필기준에 대해서 뭔가 참고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여쭙어 봤던 것이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간담회이고 식사를 하면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엄중한 이야기는 제 기억에 좀 없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마치셨습니까, 우리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지금 간사협의하러들 다 나가셨는데요, 간사님들.

○**송기석 위원** 제가 그래서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유성엽** 어떤 관련 의사진행……

○**송기석 위원** 마이크 좀 켜 보십시오.

○**위원장 유성엽** 어떤 관련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송기석 위원** 회의진행 관련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까 같은 내용이면 의사진행 반복하지 마시고요.

○**송기석 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다.

○**위원장 유성엽** 같은 내용이면……

○**송기석 위원** 같은 내용 아니라니까요.

○**안민석 위원**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은 무제한으로 허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마이크를 좀 넣어 드리세요.

○**송기석 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얼른 보아도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그냥 진행하기를 원하고 더 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정회라도 해서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절차 진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줘서 의사를 들어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두 분 나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만 하면 진행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간사분들 두 분 나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간사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송기석 간사님을 배제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고 받아들여하기를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명확하게 오히려 챙겨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지만 두 분끼리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은 강길부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강길부 위원** 별 내용도 아닌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안 하시겠습니까?

○**강길부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하시기로 하고 그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부단장님, 교육부에서 나오신 것이시지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예.

○**김민기 위원**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쓰면 사실 아닌 것을 쓰나요, 사실인 것을 쓰나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위원님, 그때 보도자료는 그런 계획으로 보도자료는 냈고요. 편찬심의위원이 구성된 것은 그다음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했던 것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찬심의 위원들은 집필진과 함께 책이 다 나오고 공개하는 게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정상적으로 잘 집필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보도자료 쓸 때 소설처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을 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쓴 거고요, 10월 13일자. 심의위원이 구성된 거는 그다음 달에 구성이 됐고요. 그 명단에 누가 들어 있는지 여부는 엇그제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담당 실무 국장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한번 읽어볼게요. ‘편찬위원회는 역사연구 3기관장, 역사학계 원로, 현장 교원,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이 중에 역사연구 3기관장만 명확한 거예요. 나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학부모 중에 어느 분이 들어오겠지요. 시민단체 인사 어느 분이 들어오겠지요. 이중의 누구를 대라는 게 아니고요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 역사연구 3기관장이 들어가 있다고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겁니다. 이 보도자료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이냐가 아니고.

어때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위

원님 그 보도자료 낼 때는 그럴 계획으로 보도자료 낸 거고요. 편찬심의위원은 그다음 달에 구성됐습니다, 11월 말에.

○김민기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으로 냈고 나중에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지금?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모른다가보다도……

○김민기 위원 모른다는 거지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명단을 발표하는 여부를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게 방침이라 그러는 거지요? 그 방침 때문에 일절 지금 저의 질의에 답변도 못 하는 거고요?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부단장 박성민 위원님, 다음에 장관님 하는 회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쭙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민기 위원 조금 이따…… 시간……

○위원장 유성엽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김민기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좀 마이크 넣어 드리지요.

○김민기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김민기 위원 방침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

○김민기 위원 이 보도자료상 보면 여기 위원이에요. 편찬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도자료,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거기 갔느냐, 회의에 참석했느냐 그랬더니 방침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규율이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무슨 내용을 했느냐, 누가 같이 있었느냐 이런 것 묻지 않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인지만 제가 묻는 겁니다.

가셨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김민기 위원님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또 마땅히 하셔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입장을 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민기 위원 혹시 각서 쓰셨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김민기 위원 어디 가서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쓰셨냐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박성민 부단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부총리님께, 교육부장관께 일괄적으로 질문을 좀 해 주시면 더 명확한 질문이 나올까 싶습니다.

○김민기 위원 아니 각서를 쓰게 했느냐라는 질문은 제가 드릴 테니까, 각서를 쓰게 했느냐라고 부총리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나오신 분이로서 방침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 봐 달라 할 정도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각서 쓰셨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너무나 쉬운 질문이고 그렇습니다만 저로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안민석 위원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좀 봐 주셔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기 위원 각서 쓰셨군요.

답변 들어야지요.

○안민석 위원 각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염동열 위원 고통스럽다는데 왜 자꾸만 그 얘기 하세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지.

○안민석 위원 그거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각서 썼는지 안 썼는지?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기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저도 이 질의를 이어가야 할까 갈등을 했지만 제가 원래 추가질의하려고 했던 대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용린 이사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언제 취임하신 거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3월 24일 날

취임했습니다.

○박경미 위원 이규택 전 이사장님이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그 후임이신 거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박경미 위원 이사장님께서서는 평생 교육계에 계셨지만 이전 이사장님들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자산 규모가 28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CJ그룹이나 신세계그룹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을 잘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 책임자를 외부 전문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 국감 때도 임원 선정 시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라, 그런 요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교원공제회에서 받은 대체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면요 중간에 외부 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이사장님을 포함한 내부 임원 4명이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사장님이 투자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투자 절차가 6단계를 거칩니다. 투자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제가 결정을 합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투자 결정에 관여를 안하신다는 거는 아닌 거지요? 마지막……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문맥 그대로 받아 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의 개인적인 사적인 입김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박경미 위원 예, 사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1972년부터 무려 45년간이나 유지되어 온 임원 선출 규정을 보면요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사는 이사장이 뽑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제회, 예를 들어서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에서는 이사장과 감사를 운영위원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마저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공제회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의 책임성 그리

고 조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사장과 감사 혹은 이사까지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담은 법률 개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실 이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는데, 공제회 입장은 어떠신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임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추천운영위원회에는 대의원 대표……

○박경미 위원 대의원이 3명이 들어가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박경미 위원 그런데 3명이 참여하는 정도로는 대의원들의 의견 반영이 충분히 된다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예.

○박경미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김화진 이사장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박경미 위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셨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가족 동반 이주율이 8.3%예요. 최저인데, 이것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마치셨어요?

○박경미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가만있어 봐. 간사님들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가서. 아직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를 끝내고 말씀을……

○이장우 위원 어쨌든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돼서 그래도…… 지난 19대 국회 교문위가 굉장히 파행도 많이 하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첫 업무보고가……

앞으로 위원회의 여러 가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국민들께서 파행하고 이런 것도 걱정하실 거고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도종환 간사님께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서 교육부하

고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밝혀도 되겠으나 이 정도 상의를 한 다음에 다음 회의 때 와서 해 주시고,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혔는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 가지고 회의가 중단되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종환 위원님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이 집필진이나라고 질문했던 게 아닙니다. 집필 내용을 좀 밝혀라 이런 것을 질문했던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걸 질문한 게 아니고 편찬심의위원이나, 편찬심의위원은 집필 다 된 다음에 그것 검토하는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편찬심의위원인데, 그 편찬심의위원이 이미 교육부에서 밝힌 데 들어가 있으니깐 그 밝힌 공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을 확인하는 거였고 그냥 질문 하나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준비한 것들이 다른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대교협에 질문이라든가 사학진흥재단에 질문할 것들, 이것을 짧게 짧게 질문할 것들이 2개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간을 끌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미 공개된 거기 때문에, 교육부의 공개된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벽을 치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답변하는 그 자세와 태도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교육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이게 교과서 발행의 방침이라고. 이것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염동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산적인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생산적인 질의를 중심으로 해 왔다고 생각했고 업무보고 자리에서부터 쟁점을 만들고 이것을 갖고 심하게 격론을 벌여야 하고 이럴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저희 당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그 자세가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장우 간사님 말씀은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김호섭 이사장님께서 와서 보고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오늘 파행하지 말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보고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회의 마무리 짓는 걸 동의하는데요.

교육부도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주시면, 소속·산하 기관들에게 그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편찬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제가 질문한 것이—그렇게 집필진 감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비공개가 방침이지만 어떤 것은 어디까지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장우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신 있게 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어떻든 두 분 간사님의 협의 결과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오늘은 정상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대답을 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동북아재단이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확인을 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또 다음 기회 때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출석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오늘 동북아재단 이사장님 대답을 종합을 해 보면 ‘그건 너무 명백한 사실 아니냐, 그런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고통스럽다’ 이걸로 요약을 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그만큼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아주 깊게 꼬여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저는 이 교문위원장을 제가 맡게 되면서 고민 중의 하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그동안의 입장을 좀 더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문위가 정상적인 상임위로 가동이 되는데 많은 애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또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두려워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그냥 못 본 채 눈을 가리고 피해서 가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 정부 측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까 양 간사 간에 합의하신 대로 다음 번 회의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질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것 놓쳤다 하는 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교육분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관련된 질의답변 문제로 상당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자산운용 실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제도 및 국가장학금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직원 비리 문제 및 나이스시스템 고도화 문제,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기관인증평가, 대학구조개혁 대책 마련 필요성, 창의력 향상과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회계시스템 구축사업, 행복기숙사 문제,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지도 문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세계화 및 대중화 노력의 필요성, 한국고전번역원의 업무능력 개선방안, 해외 문화재 관련 기관들 간의 협업 필요성,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분리회계 준비상황, 국가평생교육원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역할 강화 및 K-MOOC 문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위안부기록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냉철한 지적과 고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기관 및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전재수 위원, 조훈현 위원, 박경미 위원, 안철수 위원, 이동섭 위원, 강길부 위원, 이은재 위원, 조승래 위원, 유은혜 위원, 도종환 위원, 김민기 위원, 송기석 위원, 이장우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참석한 열두 분의 기관장님 등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28인)

강길부	곽상도	김민기	김병욱
김석기	김세연	나경원	노웅래
도종환	박경미	손혜원	송기석
안민석	안철수	염동열	오영훈
유성엽	유은혜	이동섭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배	전재수
전희경	조승래	조훈현	한선교

#### ○청가 위원(1인)

신동근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대학정책실장	배성근
정책기획관	나향욱
국제협력관	김영곤

학 교 정 책 관	신	익	현	기 획 조 정 실 장	이	승	주
대 학 정 책 관	서	유	미	한국교직원공제회			
학술장학지원관	이	진	석	이 사 장	문	용	린
교육안전정보국장	공	병	영	경 영 지 원 이 사	김	성	근
역사교육정상화추진 단 부 단 장	박	성	민	미 래 전 략 실 장	조	경	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 사 장	김	화	진	사 무 총 장	민	동	석
경영관리본부장	원	광	엽	기 획 경 영 본 부 장	박	정	섭
기 획 조 정 실 장	이	영	조	정 책 사 업 본 부 장	임	현	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 장	한	석	수				
경영기획본부장	박	근	수				
정보기반본부장	송	재	신				
한국장학재단							
이 사 장	안	양	옥				
상 임 이 사	김	금	남				
협 업 본 부 장	박	승	렬				
한국고전번역원							
원 장	이	명	학				
번역사업본부장	김	낙	철				
경영지원본부장	정	영	준				
동북아역사재단							
이 사 장	김	호	섭				
기 획 운 영 처 장	최	병	만				
연 구 관 리 처 장	임	상	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 장	이	배	용				
기 획 처 장	박	동	준				
검 사 역	정	석	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 장	기	영	화				
기획경영관리처장	심	한	식				
학점은행·독학사관 리 본 부 장	류	은	상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사 장	김	혜	천				
기금사업본부장	박	갑	식				
교육경영지원본부장	길	용	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 장	허	향	진				
사 무 총 장	전	찬	환				
경 영 지 원 실 장	정	유	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 장	이	승	우				
사 무 총 장	황	보	은				